

주제가 있는
통일 강좌 29

권력이 세습되는 북한



백승주(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주제가 있는 통일 강좌 29

권력이 세습되는 북한



통일부 통일교육원

contents



주제가 있는 통일 강좌 29

권력이 세습되는 북한

제1장	권력세습의 배경	05
	1. 북한체제의 속성	06
	2. 권력세습의 정치적 함의	10
제2장	김정일의 권력세습	17
	1. 권력기반 구축 과정	22
	2. 권력세습의 특징	38
제3장	김정은의 권력세습	43
	1. 권력기반 구축 과정	45
	2. 권력세습의 특징	66
제4장	김정일과 김정은의 권력세습 비교	73
	1. 환경적 측면	74
	2. 절차적 측면	76
제5장	김정은의 권력세습 전망	83
	1. 안정적 승계 가능성	84
	2. 안정적 승계의 한계	87
제6장	맺음말	103

주제가 있는 통일 강좌 29

권력이 세습되는 북한

chapter 1



CHAPTER 1

제1장

권력세습의 배경

1. 북한체제의 속성
2. 권력세습의 정치적 함의

제1장

권력세습의 배경

1

1. 북한체제의 속성

북한체제는 김정일이라는 개인이 북한의 핵심통치기구인 노동당, 행정부, 군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유일지배체제이다. 이러한 지배체제를 정당화하는 정치논리가 ‘주체사상, 유일지도체계, 혁명적 수령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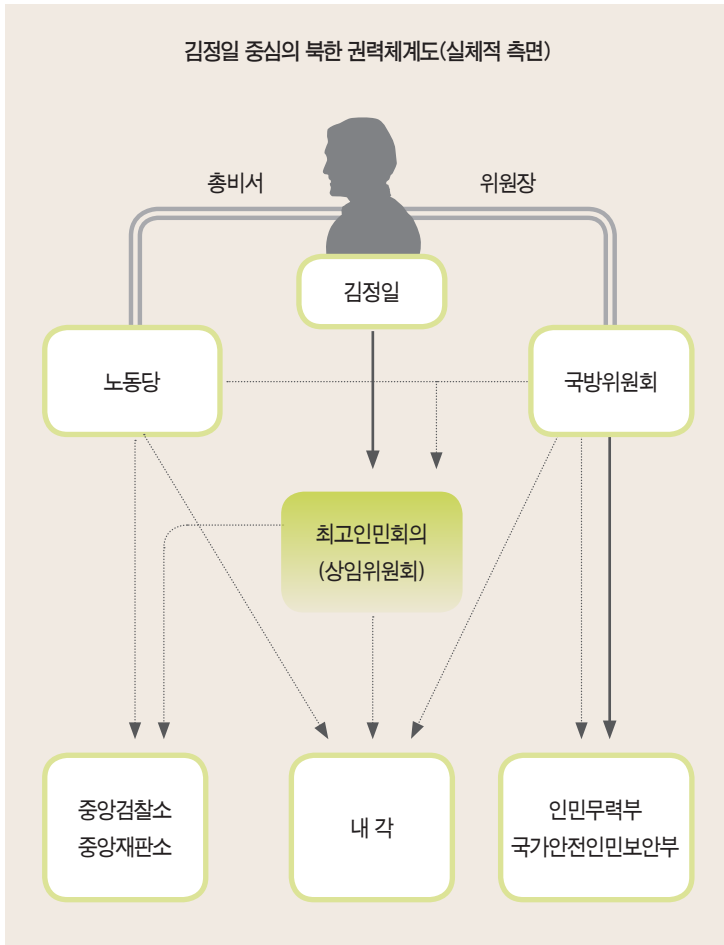
북한이 주창하는 주체사상의 핵심은 인민의 주체적 삶의 태도를 강조하는데 있다. “인민 대중이 역사발전의 주체다. 인민 대중이 자연의 구속과 모든 사회적 예측에서 벗어나 세계의 주인,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기 위해 투쟁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인민대중이 주체적으로 살아가는데 한계가 있고,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도자,

수령이 필요하다”는 정치논리로서 수령론이 정립되었다. 즉 인민대중은 그 자체로서는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데 절실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나 운명개척의 길을 알지 못하며, 자기의 생활적 요구를 실현하려는 욕망과 염원을 갖고 있으나 그것을 현실로 만들 방도를 알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인민들의 이러한 불완전성을 극복하기 위해 절대적인 존재인 수령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수령이 인민들 각자의 혁명임무와 역사적 사명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수령론의 핵심이다.¹

수령론이 정립될 당시의 수령은 김일성이었다. 김일성 유일지배를 정당화시킨 수령론은 ‘혁명적 수령관’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혁명적 수령관’에서는 수령만이 역사발전의 주체이고 수령은 무오류의 인간으로서 거의 신적인 존재로 규정된다. 혁명적 수령관은 유일지배체제를 강화해나가는 정치논리로서 “수령의 영도를 통해서만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전제주의적(專制主義的)인 수령영도론”으로 논리를 발전시켜 나갔다.

1960년대 후반부터 발전시켜온 주체사상, 수령론은 원래 김일성의 1인 지배체제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전개되었

다. 이러한 정치논리 속에 북한은 곧 수령의 체제가 되었고, 김 일성과 북한체제가 등식이 되는 체제가 되었다. 혁명적 수령론 은 김일성-김정일 권력승계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발전하였다.



수령론을 통해 김정일이 북한을 통치하고 있지만, 북한 지도자는 당규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최고직책을 맡고 있다.金正일은 노동당의 핵심기구인 정치국의 상무위원, 비서국의 총비서,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차지하고 있다. 헌법상의 최고기구인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고사령관직을 맡고 있다.

현행 헌법상의 최고지도자 지위는 국방위원장으로 볼 수 있다. 2009년에 개정된 헌법은 국방위원장의 절을 새로 신설하고 헌법상의 지위를 격상시켰으며, 국방위원장을 북한의 최고지도자이며 군사적 최고지도자로 규정했다.² 아울러 국방위원장의 임무와 권한을 다음 내용으로 명확하게 했다.³

- 국가의 전반사업을 지도한다.
- 국방위원회사업을 직접 지도한다.
- 국방부문의 중요 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 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 특사권을 행사한다.
- 나라의 비상사태와 전시상태, 동원령을 선포한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규범체계에서 보면 당규나, 헌법보다 지도자의 지시 및 사정이 상위규범으로 작동되고 있다. 2009년 3월 8일에 제12기 최고인민회의 선거가 실시되었다. 당규와 헌법에 따르면 2008년 8월에 실시되어야 할 선거였지만 김정일의 건강때문에 최고인민회의 선거가 연기된 것이다. 법과 제도에 의해 체제가 운영되는 나라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수령론과 제도적 권력, 규범체계를 종합하면 김정일 자신이 곧 북한체제이고, 최고의 통치기구로 볼 수 있다.

2. 권력세습의 정치적 함의

유일지도의 수령영도체계에서 권력의 승계문제란 당연히 수령의 교체문제를 말한다. 북한에서의 후계자 선정이란 혁명과업의 완성이라는 수령의 대업을 이어갈 지도자를 찾는 작업으로 볼 수 있다. 혁명과업은 완전무결한 수령의 영도 아래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대를 이어 수행해야 하며, 수령의 대를 이어 일할 수 있는 후계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친다. 북한의 후계자란 곧 수령의 역할을 이어받을 미래의 또 다른 수령을 의미하는 것이다.

수령론에 입각해서 북한은 후계자가 되기 위한 다음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⁴ 첫째, 수령에게 무한히 충실해야 한다. 수령의 혁명사상에 충실하지 못하면 중도에서 변질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충실성’을 최우선의 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둘째, 수령의 탁월한 영도력, 고매한 공산주의 덕성을 그대로 체현해야 한다. 셋째,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업적과 공헌으로 인해 인민들 속에서 절대적인 권위와 위신을 지녀야 한다. 2010년 9월 28일 북한은 김정일의 3남 김정은을 김정일을 이을 후계자로 공식 지명했다. 당연히 수령론, 수령혁명론, 유일지도체제 이론에 입각하여 후계자를 선정했다고 주장할 것이다.



김정은과 김정일(2010.10.10)

김정은을 후계자로 지명한 것은 정치이론으로 그 의미를 해석하면 ‘전근대적 세습왕조체제’로 설명할 수 있다. 북한이 노동당 대표자회를 통해 3대 세습체제 구축 프로그램을 밝힌 것은 북한체제의 주권이 ‘인민’이 아닌 ‘김정일, 김씨일가’에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을 의미한다. 현행 북한헌법은 “북한의 주권이 노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3대 세습체제를 공표함으로써 북한당국이 스스로 북한체제가 실질적으로 ‘세습군주제’임을 확인해 주었고, 주권관련 북한 헌법 내용은 아무 정치적 의미가 없는 규정임을 알 수 있다.

왕조체제란 군주가 통치권 전부를 장악하고 있으며, 통치기구들은 군주의 권력집행기관에 불과한 제도를 말한다. 당연히 주민들은 군주를 선택할 권한이 실질적으로 없다. 세습군주제는 군주의 지위가 주민의 의사가 아닌, 군주의 의사에 의해 군주 가족일원에게 상속되는 제도를 말한다. 당연히 왕조체제 하에서 영토와 국민들은 군주의 세습재산으로 간주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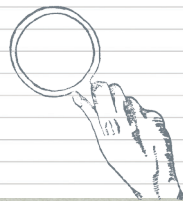
북한 정치체제는 모든 주권이 국왕에게 귀속되어 있는 ‘왕조체제’적 특징을 갖고 있다. 북한은 헌법 서문에서 “북한은 김일성의 사상과 영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2011년 신년사를 통해 1912년에서 2011년까지의 한반도 근·현대사를 「김일성조선의 100년사」로 분장시키고 있다. 북한은 놀랍게도 ‘우리민족’의 이름을 「김일성민족」이라고 때때로 칭하고 있다. 북한의 공식문건에 나타난 이러한

표현을 고려할 때 북한당국은 김일성을 왕조 창업주로 인식하고 있으며, 북한주민을 왕조의 신민으로 생각하고 있다. 왕조 체제라는 시각에서 볼 때 노동당 등 북한의 통치기구들은 김일성체제의 권력집행기관이지, 북한주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체제는 아니다.

북한 헌법의 공식명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이다. 그러나 북한정치의 현실적 정체성은 김일성을 시조로 한 세습왕조체제로 볼 수밖에 없다. 북한이 내세우는 민주주의, 사회주의, 민족이라는 정치용어는 우리 인류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민주주의, 공화국이라는 말과 전혀 관계가 없다. 북한 지도자가 후계자를 지명하고, 북한의 권력기구들이 이를 집행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해 가는 권력변동양식을 왕조식 권력승계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

f o o t n o t e

- 1 이교덕, 『북한의 후계자론』, 통일연구원, 2003, pp.6~7
- 2 북한헌법 제2절 국방위원회 위원장
 제10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 령도자이다.
 제10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임기와 같다.
 제10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 3 2009북한헌법 제103조
- 4 정성장, “김정일 시대 북한의 후계문제”, 『한국정치학회보』 39집 2호, 2005, pp.348~350





주제가 있는 통일 강좌 29

권력이 세습되는 북한

chapter2

CHAPTER 2

제2장

김정일의 권력세습

1. 권력기반 구축 과정
2. 권력세습의 특징

제2장

2

김정일의 권력세습

소련이 붕괴되기 전에 사회주의 체제내의 권력승계 문제는 많은 사회과학자들의 주요한 관심사의 하나가 되어 왔다. 의회주의 혹은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정권교체는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고 명확한 규칙에 의해 진행되는 ‘보이는’ 승계라고 할 수 있는데 반하여, 사회주의 국가의 그것은 낮은 수준의 제도화, 절차 및 게임규칙의 결여로 특징 지워지는 ‘보이지 않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 국가의 정치변동에 관심이 있는 많은 정치학자들은 권력승계 과정에 지적인 관심을 집중하였다. 그러나 끊임없는 관심과 분석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국가의 권력승계에 관한 신뢰할 만한 이론적 접근법이나 개념적 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홈즈 교수가 지도자의 등장과정을 이론

화한 「3Ps + X 이론」은 1인 절대 권력이 통치하던 공산국가의 승계과정을 비교하는데 유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서 「3Ps + X」란 권력을 승계 받는데 필요한 네 가지 요소를 말한다. 절대 권력자로부터 권력을 승계 받으려는 자는 △권력기반(power-base)을 강화하고, △지도자로서의 자질(personalities)을 획득하며, △정책능력(policies)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한다. 세 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더라도 전임 지도자가 사망하거나 실각하는 등의 정치상황이 만들어져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을 필요로 하는 특수상황(special features)이 발생해야 권력승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⁵

권력기반을 확보해야 하는 요소는 승계준비 과정에서 승계자가 국가의 중요한 권력기관의 최고지위를 직접 차지하는 동시에 자신의 추종자들로 하여금 주요한 권력기관을 장악하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지도자의 인격적 자질은 지도자와 인민들에게 투영되는 지도자적 자질을 의미하며, 정책능력은 대내적으로는 다른 지도자를 설득하고 인민의 정치적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정책의 개발과 수행능력을 말하며 국제관계에서 국익추구를 극대화할 수 있는 외교능력을 뜻한다. 새로 등장하는 지도자는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요소 외에 현 지도자의 갑작스런 사망이나 천재지변, 국제정세의 급격한 변화와 같은 특

수한 정치상황의 발생은 지도자의 승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개인적 자질, 정책능력, 권력기반을 만족스러운 수준까지 확보한 유소기가 모택동의 건재라는 국내적 권력상황과 중소분쟁의 격화라는 국외적 상황 때문에 권력승계에 실패했다고 일반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만약 승계 준비 기간 중에 모택동이 연로하여 사망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유소기가 권력을 승계하였을 가능성이 컸을 것이다.



모택동과 유소기

한편 권력승계는 안정적 승계(smooth transitions)와 투쟁적 승계(succession struggles)로 나누어진다. 다소 자의적인 주장이지만 흠즈는 5년 이내에 주요한 연속적인 권력 교체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정적인 권력승계로 간주했고, 5년 이내에 지도자들이 빈번하게 교체되고 중요한 정책대안이 제기되고 지

도자간의 갈등이 발생하면 투쟁적 승계라고 간주한다. 흠즈의 「3Ps + X 이론」은 안정적 승계를 위한 김정일의 권력승계 준비 작업의 성숙도와 승계 가능성을 판단하는데 유용하다. 따라서 이러한 「3Ps + X 이론」에 따라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그리고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의 권력세습 과정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북한의 권력승계 절차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직, 국방위원회 위원장직을 다른 사람에게 이양하는 과정을 말한다. 북한의 헌법에 따르면 최고인민회의가 국방위원장을 선출하며, 국방위원회장의 임기는 5년으로 되어 있다. 당 총비서를 포함한 당 지도자는 당 대회에서 선출된다. 당 규약에 따라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6개월에 1회 이상 소집하며, 필요에 따라 규정된 기간 보다 빨리 또는 늦게 소집할 수도 있게 규정되어 있다. 당 총비서의 경우 노동당 규약 제 24조에 의해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선출토록 되어 있으며 임기는 별도로 규정해 놓고 있지 않다.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6개월에 1회 이상 소집하도록 되어 있다. 당 총비서의 선출절차와 임기를 감안할 때 임기가 규정돼 있지 않고 당 중앙위원회의 소집이 언제나 가능하다는 점에서 당 총비서직 승계가 국방위원장 승계보다 절차는 간단하다. 그러나 노동당 규약이 북한헌법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노동당 총비서직의 승계에

부가 국가권력의 승계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서 더 중요하다.

북한의 권력승계는 제도적 승계보다 실질적 승계가 중요하다. 김정일이 1991년 12월에 최고사령관직을 차지하고, 1997년 12월에 당 총비서로 추대되고, 1998년 9월에 국방위원장에 추대되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김정일은 1994년 김일성 사망과 동시에 공식 지위와 관계없이 권력승계를 완성하였다. 황장엽 씨 등 많은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직위와 관계없이 1990년 이전에 실질적으로 권력을 승계하였다고 한다.

1. 권력기반 구축 과정

북한은 1972년에 전면적으로 헌법을 개정했다. 1972년 헌법에서는 「중앙인민위원회」에 권력을 집중시켰고, 「국가주석제」를 신설하여 일인 집단지도 체제를 확립했다. 1973년을 전후하여 김정일은 ‘당중앙’으로 후계자 자리를 차지하였다. 1973년 9월에 비공개리에 개최된 당 중앙위원회 제5기 7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일을 당권의 핵심인 중앙당 조직 및 선전선동비서로 임명하고 “김정일을 김일성의 유일한 후계자로 우리 당과 인민의 지도자로 추대하는데 대한 결정을 채택했다”.⁶ 1972

년 12월에 27일 ‘단일지도체제’로 헌법을 개정한 이후 9개월 만에 노동당은 김정일을 후계자로 결정한 것이다. 헌법 개정 이후 노동당 내부 합의를 진전시켜 당 의사 결정기구를 통해 향후 1년여 내에 ‘새 후보자’를 비공개리에 추대한 것이다.

김정일 호칭문제와 관련해서는 1973년 9월 김정일이 조직·선전비서가 된 이후 당 내부에서 ‘친애하는 당 중앙’, ‘영명한 친애하는 지도자’ 등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후계자로 지명된 이후부터는 각종 출판물이나 공식 간행물에 ‘영광스러운 당 중앙’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고 1975년 10월 당 중앙위원회 제5기 10차 전원회의에서 ‘친애하는 지도자’로 공식 결정되면서 보편적인 호칭으로 정착해 갔다. 1974년 10월에는 ‘속도전’을 적용하여 ‘70일 전투’를 발기⁷하여 성공을 거두었으며 이 공로로 1975년 2월 15일에는 중앙인민위원회로부터 ‘공화국 영웅 칭호’를 수여 받았으며 정무원 결정으로 그의 생일인 2월 16일이 임시휴무일로 지정되었다.⁸

북한은 1980년 10월 노동당 제6차 대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는 한편 김정일을 후계자로 공개하였다. 지도부 구성에서 김정일은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과 정치국 위원, 당 중앙위원회 비서로 선출되고 당 중앙위원회 군

사위원회 위원으로도 임명되었다. 김정일의 주석단 서열은 김일성, 김일, 오진우에 이어 4위를 차지했으나 중앙위원회 정치국과 비서국, 군사위원회에 모두 직책을 가진 사람은 김일성과 김정일 2명으로 실질적인 2인자였다. 김정일은 1년 후인 1981년 10월 사회주의 노동청년동맹(사로청) 7차 대회부터 김일성 다음으로 서열이 격상되었다.⁹ 이 6차 당 대회에서는 ‘혁명 전통의 계승발전’을 공식화함으로써 김정일의 위상을 강화시켜 주었다. 김정일은 후계자로 공식 등장한 이후 1983년 6월 1일부터 12일까지 중국을 비공식 방문하였는데 중국으로부터 차세대 지도자 지위를 인정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정일의 김일성 현지지도 수행(1982)

1991년 12월 24일 당 중앙위원회 제6기 19차 전원회의에서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었으며, 1992년 4월 20일에는 원수로 취임함으로써 김일성 유고를 대비한 김정일의 군권 장악을 확립하였다. 1992년 개정헌법은 국방위원장직을 국가주석직으로부터 분리함으로써 김정일이 국가주석직을 승계하기 전에 국방위원장직을 맡을 수 있도록 준비하였으며, 실제로 김정일은 1993년 국방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되었다.¹⁰

김일성 사후 김정일은 3년여 동안 과거 김일성이 가지고 있던 노동당 총비서, 주석 등의 공식직함을 승계받지 않았다. 김일성이 사망한 지 3년 3개월이 되는 1997년 10월 8일 김정일은 노동당 총비서에 '추대'되었다. 김정일이 노동당 총비서에 '추대'된 지 1년 후인 1998년 9월 5일 북한은 김일성 사망 이후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여(제 10기 1차회의) 헌법을 개정하였다. 김일성이 그의 아들에게 권력을 세습할 의사를 표시한 것은 사회주의 노동청년동맹(사노청) 6차대회 연설(1971.6.24)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김정일은 1972년 12월 22일 당 중앙위원회 제 5기 6차 전체회의에서 후계자로 결정되었으며, 1974년 2월 13일 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으로 당 고위직을 맡았고, 제6차 당대회(1980.10.10-14)에서 공식적인 후계자로 지목되었다.

1) 권력기반(power-base)

김일성 사망으로 권력을 상속받기 직전에 김정일은 북한체제의 중추적 권력기관인 노동당, 정무원, 군부 가운데 권력구조상 정점에 있는 노동당의 모든 기구에서 서열 2위에 올라있었다. 그는 당 정치국원이며, 당 비서국에서 당 사업전반을 관장하는 비서인 동시에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이었다. 김정일은 당내서열 2위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당내에서 자신의 지지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 1980년의 제6차 당 대회에서는 5차 당 대회의 중앙위원 172명을 248명으로 증원시킨 바, 그 중 70.6%를 신진인물로 충원하였는데, 이는 김정일 승계체제 확립을 위한 포석으로 평가되었다.¹¹

김정일의 승계체제를 지지해 준 주요 인적자원은 만경대 혁명학원 출신 동기생들로서 김정일은 제1기생으로 1953년에 졸업하였다. 오늘날까지 2,000명 이상의 졸업생이 배출된 바, 이들은 최우선적으로 김일성 종합대학이나 각 주요기관의 주요간부로 등용되고 있다. 이 학원 출신들은 당 중앙위원회에 20%,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에 30%, 당 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에 32%를 차지하고 있으며, 당내에서 김정일의 지원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만경대학원 출신으

로 김정일의 주요한 측근으로는 오극렬(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을 비롯하여, 이봉원(중앙군사위원회 위원), 김두남(중앙군사위원회 위원) 등이 있었다.¹²

한편, 김정일을 지지한 세력은 「3대혁명 소조원」으로서 1980년 6차 당 대회에서 김정일이 공식적으로 후계자로 등장하게 되자 3대혁명 소조운동은 더욱 강화되었으며 김정일 통치력 강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3대 혁명소조운동은 다음 두 가지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첫째, 3대혁명 소조운동의 투쟁목표를 보수주의, 경험주의, 관료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상에 두고 이를 내세워 당 간부들을 김정일 지지 세력으로 대폭 교체하여 김정일의 정치적 기반을 구축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더욱이 소조운동은 직접적으로 김정일의 후계체제 구축과 더불어 세대교체를 위한 지원세력을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었으며, 그 구성과 임무 및 소조운동에 대한 각종 평가에 잘 나타나고 있다. 이미 소조운동이 상당시간 경과했으므로 당·정·군 각 분야에서 소조원들로 많이 교체되었다. 소조원들은 “수령님계와 당 중앙에 끝없이 충실한 친위대, 근위대의 명예를 빛내어 나가고 있다”라는 구호를 앞세우고 김정일의 친위대, 근위대로 성장해 갔다. 특히

소조원들은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절대 충성을 강조하면서 성장하여 김정일 후계체제에 반대할 가능성이 있는 원로 간부들을 압박하였고, 김정일의 정치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앞장섰다.

둘째, 3대혁명 노선의 당위성과 소조운동의 성과를 부각시키고 그것을 김정일의 지도력에 의한 것으로 연결시켜 후계자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3대혁명은 공산사회를 건설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할 계속 혁명의 과업이며 노동계급의 당이 수행하여야 할 혁명의 기본내용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함께 3대혁명은 ‘김일성의 영도와 김정일 지도’에 의해 전개되고 있다는 전제 아래 이 운동에 의해 사회주의 건설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모든 선전매체를 동원하여 선전하였다. 그 결과 3대 혁명소조에 참가한 청년인텔리들은 연로한 간부들과 교체될 새로운 간부로서 성장하였으며, 그들은 김정일의 권력승계를 위한 정치적 기반이 되었다. 3대혁명 소조운동은 기존 정치기구와의 마찰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김정일의 당내 권력 기반 구축과 엘리트의 세대교체라는 이중적 과제를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승계준비 조직으로 평가할 수 있다.¹³

군부는 반 김정일 세력으로 응집할 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적 역량을 가진 집단으로 자주 거론되고 있으나, 김정일은 당

내 기반의 확보와 함께 군부의 장악을 위하여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세력 약화, 숙청, 자연도태 유도 등의 방법으로 군부 내 반대세력을 제거하는 한편 자파의 인물들을 군부의 요직에 올려놓은 결과, 1980년대에 들어 김정일은 기존의 오진우를 비롯한 빨치산세대들과 함께 오극렬로 대표되는 신진세력들을 강력한 군부 내 지지 세력으로 보유하게 되었다.¹⁴ 1990년 5월 최고인민회의의 제9기 1차 회의에서 확대되고 공식화된 국방위원회에서 김정일이 김일성에 이어 서열 2위인 제1부위원장에 올라 있는 것으로 발표됨으로써 군부 내에 권력기반을 구축하고 있음을 내외적으로 과시하였다.

1991년 12월 24일에는 김정일이 북한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었다. 북한은 1991년 1월 27일 김정일의 사령관 추대를 “주체의 혁명위업 완성, 북한 인민의 운명 개척, 당과 혁명무력의 강화발전에서 역사적 의의를 가지는 획기적인 사건”이라며 간부들의 충성을 다짐받았다. 1992년 4월 21일 김정일이 오진우와 함께 원수로 추대되어 군부 내에 확실히 권력기반을 강화하였다.

결과적으로 김정일은 김일성의 전폭적인 후원 속에 당의 권력을 우선 장악한 후 그의 잠재적 지지 세력인 만경대학원 출

신과 3대혁명소조를 중심으로 행정부에 권력 기반을 강화하고 마지막으로 군부의 권력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권력기반을 강화하는 기간에 자행된 대표적인 대남도 발들도 김정일의 권력기반을 강화하는데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후계자로 내정된 이후 3년여를 경과한 시점인 1976년 8월 18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통상적인 작업을 하던 미군을 북한군이 기습적으로 공격하여 두 명을 살해했다. 김정일은 판문점 도발을 통해 후계자로 내정된 이후 북한의 당 및 군 원로로부터 의심받던 군사적 카리스마를 얻고, 대담성을 과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980년 공식 후계자가 된 이후 3년여 지난 시점인 1983년 10월 9일 미얀마(당시 버마)의 수도 랑군에서 미얀마를 공식 방문 중인 대한민국 대통령 일행에 대한 폭탄테러를 자행하였고, 이로 인해 한국의 각료와 수행원 17명이 사망했다. 시기적으로 볼 때 김정일이 공식후계자가 된 이후 군부의 지지를 확고하게 끌어내기 위한 국내정치적 이유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자질(personalities)

황장엽은 김정일이 “아버지 김일성으로부터 권력을 물



북한군이 도끼로 공격하는 모습(1976. 8. 18)



북한 공작원들의 폭탄 테러로 뼈대만 남은 아웅산 묘소(1983. 10. 9)

러받은 것이 아니라 쟁취했다”고 했다. 김정일은 일찍이 “권력 의지를 갖고,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권력기반을 어떻게 강화해야 하고, 권력 장악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어떻게 제거해 나가야 하는가”를 잘 숙지하고 있었다.

어린 나이에 어머니 김정숙을 잃고 두 동생을 돌보아야 했던 김정일은 효성을 강조하여 아버지 김일성의 환심을 샀았다. 아울러 김일성의 해외순방길에 동행¹⁵하며 일정과 수행업무를 직접 챙기는가 하면 현장 방문시 전문가들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지며 스스로 지도자 학습에 열의를 표명하면서, 아버지로부터 정치적 신뢰를 쌓아갔다.

학교를 다니면서 그의 권력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자질을 강화했다. 김정일은 1957년 9월(15세) 남산고급중학교에 입학해서는 민주청년동맹 부위원장(위원장은 교원)을 지냈으며, 1960년 8월에 졸업하게 된다. 김정일은 이때부터 사회과학분야에 대한 과외학습을 받았으며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비롯한 당·정·군의 대규모 정치 행사와 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회의의 진행상황을 방청했다. 1960년 9월부터 1964년 3월까지 김일성 종합대학 정치경제학과를 다니면서 북한체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학문적 소양을 쌓고, 체제를 같이 이끌어갈 세력을 규합해 갔다. 김일성이 원하는 외국유학을 하지 않고 김일성 종합대학을 진학한 것도 권력 장악 준비와 관련되어 있다.¹⁶

김정일은 권력을 장악하는데 방해가 되는 세력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치밀함을 보여주고 있다. 대표적으로 그는 계모 김

성애와 그녀의 자녀들을 ‘결가지’라 하여 냉혹하게 실각시켰다. 김일성의 후처 김성애는 1969년 2월 여성동맹 위원장에 임명된 이후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다. 그러나 김정일이 후계자로 지명된 이후 김성애와 그 측근들이 대거 몰락하게 된다. 김정일은 김성애와 그 자녀들과 친분이 있는 자들을 지방으로 전출 보내거나 좌천, 숙청함으로써 고립시키는 정치기교를 보여주었다.

김정일이 권력을 장악하는데 탁월한 재능을 보여준 분야는 선전선동분야이다. 김정일은 1970년 9월 당중앙위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되면서 김일성의 항일빨치산 시절의 대본을 직접 쓰고 공연했다고 한다. 가극작품을 현대적으로 재현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하여 1년여 기간에 5대 혁명가극인 ‘피바다’(1971.7), ‘당의 참된 딸’(1971.12), ‘밀림아 이야기하라’(1972.4), ‘꽃파는 처녀’(1972.11), ‘금강산의 노래’(1973년)를 제작했다. 1971년 7월 17일에 김일성과 당·정 고위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 공연의 막을 올린 ‘피바다’는 항일 빨치산들의 항일투쟁시절을 생생하게 재연시켜 이들을 감동시켰다. 이 공연은 혁명 1세대 원로들로 하여금 김정일을 다시 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며 주민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김정일은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전통적 윤리

인 효성을 활용하여 아버지로부터 신뢰를 얻고, 후천적으로 마키아벨리가 강조하는 통치기교를 익히고, 선전선동술로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자질을 보여 주었다.



인민군 창건 60돌 경축 열병식에서 김정일과 김일성(1992.4.25)

3) 정책능력(policies)

일반적으로 지도자의 자질과 정책을 개발·추진할 능력은 지도자의 자질 중 핵심적 구성부분이다. 그러나 지도자의 자질은 정치행태학적, 정치심리학적 관점에서 인격적 특성을 중심으로 관찰하는데 비하여 정책 능력은 그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과업 내용과 질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하여 검토해 볼 수 있다.

북한선전 자료에 근거해서 보면 김정일의 정책능력은 유일사상체제를 통해 지금과 같은 북한체제를 유지하는데 견고한 토대를 만들었다. 김정일은 1972년 4월 14일 김일성의 62회 생일을 계기로 중앙당 및 국가·경제 기관을 비롯한 각 분야의 일꾼들 앞에서 한 연설을 통해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이하 ‘10대 원칙’)을 제시하여 김일성체제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80년 공식적으로 후계자가 된 이후 김정일은 체제운영의 모든 분야에서 현장지도와 시찰을 확대했다. 초기 문화·보건·체육 등의 분야에서 1983년부터는 경제·군사부문에 이르기까지 공개 활동의 폭이 넓어졌다.¹⁷ 이러한 선전의 연장선상에 보면 1980년대 이후 북한체제가 진행한 대규모 사업들은 김정일의 업적, 정책능력으로 치장될 수 있다. 평양의 개선문, 유경호텔 등 기념비적 건축과 남포갑문 등 대자연 개조사업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외교능력과 관련하여 김정일은 중국과 협력관계를 유지, 발전시켰지만 개혁·개방의 시기를 놓쳐 북한체제의 경제적 위기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일은 공식 후계자가 된 이후인 1983년 6월 1일부터 12일까지 중국을 비공식 방문한 이후 중국 지도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 발전시켰다. 그러나 구소련

과 동구권, 그리고 중국이 개혁·개방을 통해 체제를 발전시킨 1990년대에 「우리식 사회주의」에 집착하여 단기적으로 체제를 보존 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체제의 본질적 위기를 만들었다.

김정일의 정책능력은 북한당국에 의해 선전되는 부분과 실질적 성과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 북한의 선전내용만 보면 북한이 지금 보다 잘 살아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세계 최빈국이 되었다. 서구학자들로부터 ‘실패한 체제’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다.

4) 특수상황(special feature): 김일성 사망 시기

1980년 10월 노동당 제6차 대회에서 김정일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비서국 비서,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으로 공식적 후계자가 된 이후 권력이 강화되고, 이에 반비례적으로 김일성의 영향력은 줄어드는 추세가 유지되었다. 1994년 김정일이 실질적으로 북한을 통치하는 상황에서 김일성은 1994년 7월 8일 사망했다. 권력승계를 위한 준비가 거의 완벽하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김일성이 사망했던 것이다.

김일성 사망 이후 북한 당국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최고



북한 주민들의 김일성 동상 참배

인민회의의 대의원을 소집하고 장례식을 치루었다. 사망 이후 43일 만에 북한 당국은 김정일을 유일 지도자로 호칭하고 실질적으로 권력승계가 이루어졌음을 밝혔다. 북한 당국은 김일성 사망 이후에 노동당 중앙위원회를 열어 실질적인 권력승계를 마무리 한 것으로 분석된다. 제도상으로는 1997년 10월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중앙군사위원회 공동 명의로 당 총비서로 추대되었고, 1998년 9월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됨으로써 권력승계 절차를 완결지었다.

김일성 사망 이후 북한 당국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하여 장례식 이전에 실질적으로 승계절차를

마무리 하였다. 이후 제도적 승계는 1997년 당 총비서를, 1998년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맡음으로 완성하였다.

2. 권력세습의 특징

김정일의 권력승계 준비현황을 「3Ps + X이론」을 토대로 검토할 때 철저하게 준비된 권력승계라고 평가할 수 있다. 김일성은 김정일에게 권력기반을 강화할 기회를 주었고, 김정일은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했다. 김정일이 권력을 승계한 특징은

〈김일성 사망 이후 권력승계 과정〉

1994. 7. 8.	김일성 사망
1994. 7. 10.	노동당 중앙위원회,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소집지시
1994. 7. 18.	평양방송, 김정일을 중심으로 김일성 노선을 고수 다짐
1994. 7. 19.	김일성 장례식
1994. 8. 21.	김정일을 '유일적 영도자'로 호칭 시작
1994. 9. 6.	김정일, 사실상 주석직 업무를 수행
1994. 9. 10.	중앙방송, 김정일에 대한 '위대한 수령' 공식 호칭 사용
1997. 10.	노동당 총비서 추대
1998. 8.	헌법개정, 국방위원회 위원장 추대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노동당 권력을 장악하고, 군사권력을 장악하는 순서로 승계준비를 진행했고, 자질 및 정책능력은 선전선동 능력에 의해 나타났다. 김정일은 대학졸업 이후 당 비서국 조직담당 부서를 통해 당을 완전히 장악하여 갔다. 아울러 호위총국에 근무하면서 김일성 측근들을 장악하고, 당 선전선동부를 맡아서 자신의 지도자적 이미지를 만들어 갔다. 준비의 마지막 단계에 군부를 장악했다. 군부를 장악한 이후에 김일성이 사망함으로써 권력승계를 위한 최적의 조건이 만들어졌다.

둘째, 김일성 사망 이후에 권력이 승계된 것이 아니라 김일성 생존시에 이미 권력승계가 진행되고 있었다. 1991년 12월에 인민군 최고사령관에 추대되고, 1993년 4월에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된 것은 이미 당·정·군 권력체계에서 군사권력이 김정일에 이양되었음을 말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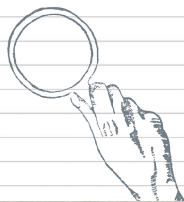
셋째, 2인 지도체제에서 1인 지도체제로 바뀌어 갔다. 1980년대 6차 당 대회 이후 북한의 권력은 실질적으로 김일성-김정일에 의해 분할 통치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김일성 사후 김정일은 모든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했다.

f o o t n o t e

- 5 Leslie Holms, *Politics in the Communist World*, Oxford University, 1986, pp. 177~209
- 6 『조총련 학습자료』, 1982.2
- 7 ‘70일 전투’가 끝난 후에는 평양시 건설과 각지의 혁명전적지·혁명사적지 건설에 박차를 가했다.
- 8 1982년 2월부터는 정식 휴무일로 지정했으며, 1992년 50회 생일을 계기로 북한의 선전기관들은 김정일의 생일을 ‘민족 최대의 명절’로 부르기 시작했다. 김일성 사후 1995년 2월에는 김정일 생일 행사의 일환으로 ‘중앙보고대회’ 개최하고 이후 매년 개최해오고 있다.
- 9 김광인, 『북한 권력승계에 관한 연구』, 1998, pp.156~157
- 10 전용석,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의 원천” 『근로자』 제10호, 1991, p.31
- 11 전경만 외, 「중·소 및 동구의 개발하와 북한의 변화전망」, 국방연구원, 1990, pp.134~135
- 12 이관세, 「김정일 후계체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1989, p.89
- 13 Ibid, pp.66~67

footnote

- 14 차두현, 「김정일 권력승계에 있어서 북한군부의 정치적 역할에 관한 연구」, 1986, 연세대학교 대학원, p.71
- 15 북한의 『조선전사년표 2』는 김정일이 1964~66년의 3년간 김일성의 현지지도에 장기출장(인도네시아 방문 등) 15회를 포함하여 모두 31회나 동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 16 신일철, “김정일체제 관리경론과 그 연명술”, 『김정일 체제관리론의 분석과 전망』, 고려대북한학연구소 창립 1주년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996, p.12
- 17 김광인, 『북한 권력승계에 관한 연구』, 1998, pp.156~157, p.513



주제가 있는 통일 강좌 29

권력이 세습되는 북한

chapter3



CHAPTER 3

제3장

김정은의 권력세습

- 1. 권력기반 구축 과정**
- 2. 권력세습의 특징**

제3장

3

김정은의 권력세습

북한은 김정일의 3남인 김정은으로 권력승계 준비를 공개적으로 시작했다. 북한은 2010년 9월 28일 「당대표자회」를 통해 김정은을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했고, 10월 10일 당 창건기념일을 통해 김정은 부위원장의 활동을 국내외에 과시하였다. 김정일 위원장이 김정은에게 정치권력을 인계하고 인수하는 기간의 북한체제를 「김정일-김정은 과도체제」라고 규정할 수 있다. 당대표자회 결의 내용을 중심으로 보면 김정일을 지도자로 재추대하고, 김정은을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는바, 권력 승계를 공식화하였다.

1. 권력기반 구축 과정

김정은이 권력승계자로 지명된 일차적 배경은 그의 형들인 김정남, 김정철이 후계자 검증과정에서 김정일의 신임을 얻는데 실패한데 있다. 김정남은 1995년부터 2002년까지, 김정철은 2003년부터 2005년 말까지 후계자로서 자질 검증을 받았다.

김정남은 10대 중반에 북한 컴퓨터위원회 위원장으로 공식활동을 시작했다. 1980년대 말에 국가안전보위부에서 활동하기도 했고, 노동당 선전선동부에서 일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정남은 1996년 이모인 성혜랑의 망명, 2001년 일본 밀입국 사건 이후로 신임을 잃었다. 2001년 5월 김정남은 그의 아들과 두 명의 여성을 대동하고 도미니카 가짜 여권을 소지한 채 일본 나리타 공항을 통해 일본에 입국하려다 일본당국에 의해 체포되어 추방되었다.



일본 나리타 공항의 김정남 (2001.5)

차남 김정철은 생모인 고영희의 후원 속에 2002년 이후 후계자로서 검증 받을 기회를 얻었다. 2000년대 초반 일부 추종 그룹이 ‘김정철 배지’를 만들고, 이상화를 시작한 징후들이 있다. 그러나 김정철의 자질상 결함 때문에 김정일의 신망을 잃은 것으로 파악된다.¹⁸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김정은으로의 승계 가능성을 검토한 시기는 2006년 초로 짐작된다. 북한 당국은 2005년 9월 후계자의 자질문제에 대하여 ‘수령에 대한 충성과 영도능력’을 강조한 바 있다.¹⁹ 북한 당국은 이러한 후계자 자질문제를 언급한 직후에 다시 ‘후계자 선정과정’에서 경계해야 할 것은 ‘종파주의, 지방주의, 가족주의’라고 지적하고 핵심계층 내부의 분열가능성을 경계했다.²⁰ 2005년 12월에 김정일은 승계 논의 중단을 지시했고, 이는 진행중인 김정철로의 승계준비 중단을 의미했다.

2006년 북한 노동신문의 사설과 정론에는 김정일 이후 후계구도의 암시로 불만한 표현들이 등장하였다. 먼저 북한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10대 당시의 영웅담을 적극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김일성은 14살이던 1928년에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여 항일투쟁을 선두에서 지휘하였고, 김정일은 14살이던

1956년에 백두산혁명전적지 답사행군을 조직하여 행군을 성공적으로 마쳤을 뿐 아니라 혁명전통계승의 전기를 마련하였다는 것이다.²¹ 여기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핵심내용은 혁명을 하는 데서 나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10대 청년의 혁명적 영웅담에 대한 강조는 3대 부자세습의 가능성을 높여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²² 역으로 김정남, 김정철에 대한 불신 속에 3남 김정은에 대한 검토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가 구체적으로 검토된 것은 2008년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심각한 건강이상이 발생한 직후로 보인다. 심각한 상태에서 벗어난 북한 지도자는 승계 예정자를 확정하고, 승계 관련 정치적 절차를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당 창건 65주년 열병식에 참석한 김정일과 김정은(2010. 10. 10)

북한 당국이 김정은을 차세대로 등장시키는 과정은 매우 드라마틱하다. 먼저 김정은을 찬양하는 노래를 등장시키고, 김정일이 김정은을 대동하여 현지 지도하는 뉴스를 전하고, 대장칭호를 부여하고, 공식지위를 부여하는 방법을 택했다. 2009년 10월 9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TV가 김정일 관련 동정을 보도하면서 '발걸음'이라는 합창을 참관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이 노래는 2010년부터 북한 주민들에게 본격적으로 보급되었는데, 노래가사 내용 중 “...우리 김 대장 발걸음 2월의 위업 받들여...”등은 김정은으로의 후계 진행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노래가사처럼 북한은 2010년 9월 28일에 김정은에게 대장 호칭을 부여했다.²³



'발걸음' 합창장면(2009)

김정은을 등장시키기 전에 북한은 김정은으로의 정치적 절차 준비와 관련하여 헌법을 개정하는 조치를 취했다. 먼저 2009년 4월에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헌법을 개정하였다. 2009년 북한헌법 개정이 이전의 헌법개정에 비해 특별한 관심을 끈 이유는 바로 북한의 후계체제와 관련된 내외의 관심 때문이었다. 헌법개정이 준비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기간인 2008년 후반기부터 2009년 4월 초순까지 북한체제는 지도자의 건강문제로 후계자문제, 후계체제 유형문제에 대한 권력장치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심각한 고민이 있었을 것이다. 뇌졸중이라는 갑작스러운 질병이 아니더라도 1942년생인 김정일의 나이를 고려할 때 북한 지도부는 김정일 후계체제, 후계체제 유형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정치과제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많다.

이러한 내부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2009년에 개정된 북한헌법(이하 「2009북한헌법」)은 북한 내부정치의 상황을 반영하고, 해결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후계문제 해결이라는 과제와 관련하여 가장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내용은 국방위원회(장)의 권한 강화이다. 국방위원장과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한 것은 1972년 헌법개정 방향과 유사하다. 1972년 12월 27일에 개정된 헌법을 통하여 북한은 ‘국가주석제’를 신설하여 국가주석에 권력집중의 구심점의 지위를 부여했다. 1972년 헌법개

정을 전후하여 김정일은 ‘당중앙’이라는 상징어로서 후계자 지위를 차지해 갔다.

〈2009 개정헌법의 국가기구 관련 변화내용〉

구분	舊 헌법('98.9)	新 헌법('09.4)	비고
제6장 국가 기구 제2절 국방 위원장		100조 국방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다.	신 설
		101조 국방위원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임기와 같다.	신 설
		102조 국방위원장은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신 설
		103조 국방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전반사업을 지도한다. 2. 국방위원회 사업을 직접 지도한다. 3. 국방부문의 중요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4.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5. 특사권을 행사한다. 6. 나라의 비상사태와 전시상태, 동원령을 선포한다.	신 설
		104조 국방위원장은 명령을 낸다.	신 설
		105조 국방위원장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신 설

제3절 국 방 위원회	100조 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 기관이며 전반적 국방관리기관이다.	106조 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국방지도기관이다.	'최고국방지도기관'으로 수정
	103조 국방위원회는... 1. 국가의 전반적 무력과 국방건설사업을 지도한다. 2. 국방부문의 중앙기관을 내오거나 없앤다. 3. 중요군사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4. 군사칭호를 제정하며 장령 이상의 군사칭호를 수여한다. 5. 나라의 전시상태와 동원령을 선포한다.	109조 국방위원회는... 1. 선군혁명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국가의 중요정책을 세운다. 2. (구헌법 103조 1호)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집행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5. (구헌법 103조 2호) 6. (구헌법 103조 4호)	* 1·3·4호 신설 * 2·5·6호는 舊헌법103조 1·2·4호 * 구헌법 103조 3·5호는 신헌법 103조 3·6호로 이관
	104조 국방위원회는 결정과 명령을 낸다.	110조 국방위원회는 결정, 지시를 낸다.	'지시' 신설 및 '명령' 삭제

북한이 직면한 내부 정치 환경과 과제를 고려할 때 국방위원장 및 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한 내용이 권력승계와 관련하여 가지는 정치적 함의는 “권력기반이 취약한 새 승계 후보자에게 초반에 권력을 집중”시키려는 의도와 관련되어 있다.

북한은 2010년 6월 26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를 통해 “조선로동당 최고지도기관 선거를 위한 조선로동

당대표자회를 9월 상순에 소집할 것을 결정한다”고 결정하였다. 그리고 2010년 9월 28일 김정은에게 인민군 대장 칭호를 수여했다. 아울러 2010년 9월 28일 노동당 대표자회를 개최하여 김정은을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는 등 당 체제를 다음 표와 같이 정비하였다.

〈2010.9.28 당 대표자회시 정비 내용〉

구분	당 중앙위원회	당 정치국	당 비서국	당 중앙군사위원회
구성 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 124명 (신규84명, 68%) • 후보위원 105명(신규98명, 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무위원 5명(김정일, 김영남 외 3명 신임) • 위원 12명(전병호 외 11명 신임) • 후보위원 15명(전원 신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 총비서국 1명 • 당 비서 10명(김기남, 최태복 외 8명 신임) • 당 부장 14명(김평해, 주규창 : 2명 신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1명 • 부위원장 2명(김정은, 이영호 : 신설직제) • 위원 16명(김영춘, 김명국 외 14명 신임)

김정은에게 당과 국가 기구 중에서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부위원장직을 부여한 것은 권력승계에 필요한 당권과 군권을 동시에 장악하도록 하려는 정치적 배려 때문이다. 노동당 규약에 따르면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당 군사정책 대행방법을 토의 결정하며 인민군을 포함한 전무장력 강화와 군수산업 발전에 관한 사업을 조직, 지도하며 우리나라의 군대를 지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당의 당규가 북한 헌법을 지도하는 체제원

리를 적용하면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헌법상의 기관인 국방위원회를 지도하는데도 문제가 없다. 당 중앙위원회에 북한체제를 움직이는 17명의 위원을 임명해 놓고, 실질적으로 이들을 지도하는 부위원장 직위에 보직하여 단숨에 당과 내각을 장악하는 지도자적 지위를 주려고 하는 것이다.

당 대표자회 개최 이후 김정은은 김정일의 현지지도를 공개수행하고, 공식행사도 수행하여 당과 군을 장악하고 있다.



김정은의 김정일 현지지도 수행(2011)

1) 권력기반(power-base)

김정은의 핵심적 권력기반은 김정일의 정치적 신임과 건강이다. 김정은의 군내 영향력은 이영호 부위원장을 통해 확대해 갈 것으로 보이며, 당 및 정부 내 권력기반은 고모부인 장성택을 통해 진행해 가고 있다.

김정은으로의 승계준비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2007년 이후 갑작스럽게 부상하거나 중요직책을 맡은 군 인사들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2009년 2월 11일 북한군은 김영춘을 인민무력부장에, 이영호를 총참모장에 임명하였다. 김정은에



당 대표자회(2010.9.28) 참석자 기념사진(김정은과 김정일 가운데가 이영호, 2010.9.28)

대한 군부 충성심을 결집시킬 인물은 총참모장인 이영호 차수로 볼 수 있다. 이영호는 김정은이 대장 칭호를 받을 때 차수로 승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 정치국 위원, 중앙군사위 위원으로 선출되었다. 한 탈북자의 증언에 따르면 이영호는 포와 관련한 군사지식이 출중하며, 다른 군부 인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치적 처신이 신중하다고 한다.

당과 행정분야 영향력 확대는 장성택을 통해 권력기반이 강화되고 있다. 1945년생인 장성택은 김일성의 사위이며, 김정일의 매제이다. 1989년 노동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으로 활동할 당시부터 장성택 주변에 북한의 권력엘리트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공식적으로 1995년 11월부터 2001년 까지 당 조직부 제1부부장 활동²⁴을 한 장성택은 김정일을 제외하고 북한의 권력 장치 내부에 가장 많은 세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기간 중에 장성택은 사법, 검찰,公安기관에 대한 당 생활 및 정책적 지도를 담당했다. 2003년 이후 활동이 위축되었던 장성택이 2006년 1월 공식 활동을 재개하였고, 2008년 초 그는 당의 사회통제 임무를 통제하는 당 비서국 행정부 부장 일을 수행하고 있었다. 장성택이 김정은의 정치적 후견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의 현지지도 수행하는 장성택(우측에서 네번째가 장성택, 2010)

김정일 이후 권력 승계에 일정한 영향을 행사할 김정일 일가의 단결을 형성하는 역할은 김경희가 맡고 있다. 김경희는 김정일의 누이동생이며, 해방이후 1946년에 태어났고 1972년 장성택과 결혼했다. 1975년 당 중앙위원회 국제부 1과 과장, 1976년 당 국제부 부부장, 1991년 당 경공업부 부장을 담임한 바 있는 김경희는 당 및 정무원에 상당한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다. 2010년 9월 28일 대장칭호를 받은 김경희는 김정은 형제들을 포함한 친족들의 정치적 단결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다.

김옥은 1980년대 초부터 김정일의 기술비서로 근무하고 있다. 미국 해군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장은 “김옥은 김정일의 개인 비서이자 사실상 북한의 퍼스트레이디로 실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김정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²⁵ 김옥은 2000년 조명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수행하여 미국을 방문한 적도 있으며 김정일의 정치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정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대미정책에 일정부분 관여하며, 체제유지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고려할 때 북한의 승계과정에 일정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2011년 김정일의 중국 방문시 사실상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한 점을 고려할 때 김옥은 김정은의 권력강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역시 권력준비 과정에서 대남도발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009년 1월부터 2011년 6월까지 김정은의 후계체제 구축기 시기에 북한이 시도한 주요한 대남도발은 다음 표와 같다.

〈김정은 후계체제구축기의 대남도발〉

시기	사건
2009.5.25	2차 핵실험, 지대공 미사일 3발 발사
2009.11.10	북한 경비정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여 남하 후 선제공격. 대청해전 발생
2010.3.26	백령도 서남방 2.5km 해상에서 천안함 폭침. 승조원 46명 사망
2010.8.9	백령도 북방 해상에 해안포 10여발 발사
2010.11.23	연평도에 해안포 공격

2009년 4월 5일 장거리로켓 발사, 2009년 5월 25일의 2차 핵실험 등도 김정은의 승계준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김정은이 김정일이 제시한 강성대국 슬로건을 군사 분야에서 실현하기 위해 도발시기를 고려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2010년 3월 26일의 천안함 폭침사건, 2010년 11월 24일 연평도 포격사건 등은 김정은의 군권장악과 관련하여 군사적 자질 중 대담성이 과시되었다. 김정일의 8.18도끼만행 사건과 견줄만한 대담한 도발을 통해 김정은은 북한군부의 다른 인사들과 차별화된 평판을 만들어 냈다. 김일성과 김정일은 서해 북방한계선에 대한 불만을 가졌지만 이러한 도발을 통해 한국을 압박하지는 않았다. 김정은은 연평도 포격을 통해 김일성, 김정일과도 차별화된 군사적 평판을 만들었다.



북한의 공격으로 침몰한 천안함의 인양 모습(2010.3)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파손된 민가(2010.11)

한편, 김정은이 후계자 지위를 획득한 시기와 전후하여 박남기, 김일철, 이제강(사망)²⁶ 등이 세력을 잃어가고, 김정은을 후견할 세력중심으로 권력기반이 강화되고 있다.

〈2010.9.28 노동당 대표자회 이후 북한 주요 인사〉

2010. 2.3	박남기 계획재정부장 해임
2010. 4.14	군장성 100명 진급
2010. 5.14	김일철 국방위원회 위원 해임
2010. 6.2	이제강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사망
2010. 6.7	최고인민회의 제12기 3차회의 (총리 및 부총리 교체, 장성택 국방위부위원장 임명, 김명국 복권)
2010. 9.28	당 대표자회 (정치국 재정비, 김정은·김경희 주요보직 임명)
2010. 11.6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사망
2011. 3.16	주상성 인민보안상 해임
2011. 4.7	최고인민회의 제12기 4차회의 (전병호 소환, 박도춘 국방위 위원, 이명수 인민보안부장 임명)

2) 자질(personalities)

2010년 9월 당 대표자회 이전 기간에 김정은의 출생과 성장에 대한 자료가 빈약한 가운데 실질적 자질을 파악하기는 사실상 힘들다. 다만 후계자로 공식 지명되는 과정에서 다음 몇

가지 점에서 아버지 김정일과 유사한 다음 몇 가지의 자질을 가진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첫째, 아버지의 사랑을 정치적 신뢰로 연결시키는 자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과 비슷한 용모로 김정일 및 권력 엘리트들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던 김정은은 이러한 사랑을 정치적 기대로 만드는 재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 김정일과 같은 권력의지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권력승계자 지위를 차지하는 과정에서 김정남 추종세력을 제거하는데도 대담한 조치를 취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²⁷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제거해야 할 방해세력을 식별하고, 이를 제압하는 결단을 보였다.

셋째, 김정일과 같이 후천적으로 통치를 위한 학습에 부지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96년부터 2001년에 이르는 스위스 베른 유학시절 그를 지켜본 한 인사는 “부지런하고 야심에 찬 학생이었다”고 평가하였다. 김정일의 요리사로 김정은의 어린 시절을 가까이서 지켜본 후지모토 겐지는 “농구 경기 등 스포츠 경기에서 매우 지기 싫어하는 아이”로 기억하고 있다.²⁸

북한의 선전 자료들은 김정은의 군사적, 과학적 자질을 강조하고 있다. 2009년 4월 5일 함북 화대에서 김정일과 함께 “광명성 2호” 발사 현장을 관찰하였고, 4월 14일 “강성대국 불보라” 명칭의 김일성 생일 축포야회를 직접 조직하였다고 한다. 김정은은 김일성군사종합대학 보병지휘관 3년제와 연구원 2년제를 2006년 12월 24일에 졸업하면서 ‘인공위성자료와 GPS수신기 좌표를 활용한 작전지도 개발을 통하여 포병의 화력타격 정확성 보장방안’을 발표하는 등 후계자 내정 이전부터 군사적 자질이 있음을 과시하였다고 한다.²⁹ 2009년의 150일·100일 전투, CNC(컴퓨터 수치제어)에 의한 산업시설 관리, 함흥 비날론 공장 가동, 대계도 간척지 개발도 김정은이 주도한 것으로 소개되고 있다.³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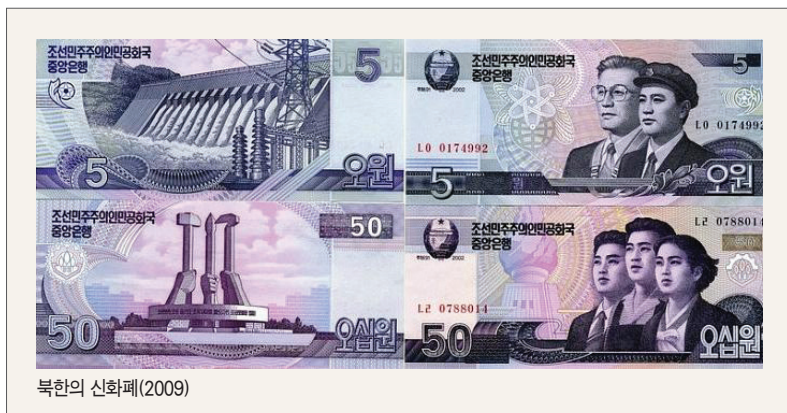
김정은은 김정일과 비슷한 생래적 자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버지 김정일의 사랑을 정치적 자산으로 만들고, 지도자가 되기 위한 후천적 정치학습을 부지런히 했다. 아울러 권력경쟁 세력을 대담하게 제압하고 2차 핵실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을 이끌면서 대담한 도발을 통해 군사적 카리스마를 만들었다.

3) 정책능력(policies)

실질적으로 김정일이 이끄는 현 상황에서 김정은의 정책능력을 평가하기는 힘들다. 다만 그가 사실상 후계자 지위를 확보한 가운데 북한은 2009년 11월 30일 화폐개혁을 단행했다. 화폐개혁을 김정은이 주도했는지, 김정일-김정은이 공동으로 주도했는지 분명하지 않았지만 김정은 후계체제와 관련한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화폐개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³¹ ①구권과 신권의 교환비율은 100:1이며, 개혁직후 미화 1달러(USD) 대 신권 1원(NKW) 공식 환율은 1:96.9이다. ②구권과 신권의 교환기간은 11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이다. ③북한 당국이 정한 교환한도는 처음 가구당 10만원(신권 1천원)으로 제한되었으나, 주민들의 반발이 일자 가구당 한도를 기본 10만원에서 1인당 5만원씩, 4인 가족의 경우 30만원까지 추가 상향 조정하였다.

아울러 화폐개혁을 전후하여 북한은 △종합시장 폐쇄·축소, △내국인 외환거래 및 사용 전면 중단, △밀수밀매 단속 강화, 국경지역 단속 강화 등의 경제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화폐개혁은 북한당국이 개혁의 책임자인 박남기를 숙청한데서



나타나듯이 실패했다. 화폐개혁의 추진에 김정은의 역할을 정확하게 평가하기는 힘들다. 화폐개혁은 김정은의 경제정책 능력에 대한 내외의 신뢰를 만드는데 실패했다.

군사정책과 관련해서는 2차 핵실험, 핵융합능력 과시 등을 통해 핵보유 체제로 인정받기 위한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대남정책과 관련해서 이전 시대와 차별되는 대남군사도발을 감행하고, 포전력을 중심으로 한 재래식 전력 증강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사이버전력을 발전시켜 대남 도발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2011년 황금평, 나진 선봉지역에 대한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미국과 직접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남북대화-미북대화-6자회담 본회담」이라는 단계적 6자회담을 활용하는 대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핵문제와 관련하여는 핵참화를 언급하며 핵무기 보유사실을 기정사실화하려 하고 있다. 두 번째 핵실험 결심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단계적 6자회담에 대한 북한 입장 설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전체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북한의 주요정책들에 김정은의 결심,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하기 힘들다. 그러나 김일성-김정일로 이어지는 승계기간에 주요 정책에 미친 김정일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김정일-김정은으로 권력이 이양되는 과도기간에 진행된 주요 정책에 김정은이 상당한 정도로 개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김정은의 연륜이나 경력을 고려할 때 김정일의 정책자질은 선전선동으로 조작될 수밖에 없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이 2009년 10월 5일에 보도한 김정은 관련 다음과 같은 내부 강연 자료가 그러한 조작에 노심초사하고 있는 북한의 고민을 잘 보여준다.³²

“김정은 동지는 현대군사과학과 기술에 정통한 천재이며, 포병 부문에 매우 정통하고 입체감과 정확도를 갖춘 새로운 군사 지도를 만들었다. 김정은 대장 동지는 저렛의 위인이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으로 아버지가 되는 수령님(김일성)과 경애하는 장군님(김정일)을 꼭 닮은 선군영장이다”

2. 권력세습의 특징

김정일이 3남 김정은에게 정치권력을 인계하고 인수하는 현재의 북한체제를 필자는 「김정일-김정은 과도체제」라고 규정하려고 한다. 혹자는 이미 김정은이 권력승계를 완성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당대표자회 결의 내용을 중심으로 보면 권력승계를 공식적으로 시작했다고 봐야지, 승계완성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북한체제가 안정적으로 권력승계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적 모델’은 바로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권력을 승계한 과정을 답습하는 것이다. 김정일이 김일성으로부터 권력을 승계한 과정 상에 나타난 특징은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노동당 권력을 장악하고, 군부를 장악하는 순서로 승계준비를 진

행했으며, 선전선동 능력으로 독자적인 카리스마를 만들어갔다.³³ 둘째, 김일성 사망 이후에 권력을 승계한 것이 아니라 김일성 생존 시에 이미 권력승계를 진행했다.³⁴ 셋째, 2인 지도체제에서 1인 지도체제로 바뀌어 갔다. 1980년대 6차 노동당 대회 이후 북한의 권력은 실질적으로 김일성-김정일에 의해 분할 통치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80년 6차 노동당 대회에서 김일성 사망 시까지 김일성은 권력을 인계하고 김정일은 권력을 인수하는 과도기적 권력체계를 유지했다.

김정일이 권력을 승계한 과정과 같이 ‘당권을 장악하고 점진적으로 군권을 장악하는 방법’으로 권력을 승계하기 위해서는 거의 20년에 걸친 준비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김정일의 건강 등을 고려할 때 승계준비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북한은 승계예정자 김정은이 단기간에 당권, 군권을 장악하도록 하면서 정치적 카리스마를 만들도록 하는 승계 방식을 설정하고, 승계절차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노동당 대표자회를 통해 단기간에 김정은이 당권과 군권을 동시에 장악하도록 하기 위하여 북한체제는 크게 네 가지 차원의 정치적 조치를 취했다. 첫째, 노동당 지도체제를 정비하여 당의 권위를 회복시키려 하였다. 둘째, 노동당 중앙군

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신설하고 김정은을 선출하여 그가 실질적인 2인자 역할을 하도록 했다. 셋째, 이영호 총참모장³⁵을 군부의 핵심인물로 등장시켰다. 넷째, 김정은과 함께 대장 칭호를 부여한 김경희를 정치국원으로 선출함으로써 정치적 위상을 높였다.

당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노동당 기구가 헌법상의 기구를 지도하도록 하면 된다. 당 기구인 중앙군사위원회를 통해 헌법기구인 국방위원회를 지도한다면 자연스럽게 당의 권위가 회복될 수 있다. 노동당 당규에 따르면 중앙군사위원회는 “당 군사정책 대행방법을 통해 결정하며 인민군을 포함한 전체 무장력을 강화하고 군수산업발전에 관한 사업을 조직, 지도하며 우리나라의 군대를 지휘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³⁶ 노동당 규약이 북한 헌법을 지도하는 체제원리를 적용하면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헌법상의 기관인 국방위원회를 지도하는데도 문제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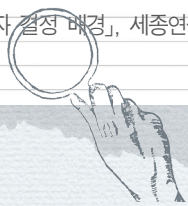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에 북한체제를 움직이는 장성택을 포함한 파워 엘리트 17명의 위원을 선출해 놓았기 때문에 위원장인 김정일이 불참한다면, 부위원장인 김정은이 자연스럽게

게 이들을 지휘 통솔하는 구도를 만들어 김정은의 정치적 카리스마 형성을 최단시간에 확보하도록 고려하고 있다. 1980년대에 승계예정자 김정일에 대해 군부지지를 오극렬이 중심이 되어 이끌었듯이 이영호 차수를 통해 군부지지를 이끌어내도록 조치했다. 새로운 조치와 관련하여 김경희의 정치적 위상을 높인 것은 승계에서 탈락한 김정은 형제들을 포함한 김정일 일가의 결속³⁷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군부의 사기를 고려하면서도 비상관리체제인 '선군정치 방식'에서 점차 당의 권위를 회복하여 '당이 군을 통제하는 사회주의체제의 원형적 당군관계의 규범인 이당영군(以黨令軍)로 체제운영방식을 전환하는 과정을 통해 김정은에게 권력을 이양하려는 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 있다.

f o o t n o t e

- 18 정성장, “김정일 후계자 김정은”, 「신동아」, 2009.7, pp. 246~25
- 19 「조선중앙방송」, 2005.9.26 ; “...당의 위업계승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는 것은 당과 혁명의 장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당의 위업계승문제는 단순히 혁명의 대가 바뀌는 시기에 당과 혁명의 영도적 지위를 넘겨주는 실무적 문제가 아니라 혁명위업을 이끌어 나가는 영도의 계승문제, 정치적 수령의 후계자 문제...당의 위업을 계승해 나가는 데서 기본은 정치적 수령이 후계자 문제를 바로 해결하는 것...수령의 사상과 영도에 끝없이 충실하고 온 사회에 대한 정치적 영도를 원만히 실현할 수 있는 품격과 자질을 갖춘 참다운 인민의 지도자만이 될 수 있다...”
- 20 「조선중앙방송」, 2005.9.28
- 21 대표적으로는 “위대한 기수”, 「노동신문」 정론, 2006.2.13
- 22 이교덕·임순희·조정아·이기동·이영훈, 『새터민의 증언으로 본 북한의 변화』, 2007.12, pp.18~19
- 23 이영종, 앞의 책, pp.18~21
- 24 1994년 7월에 망명한 탈북자 강명도(강성산 총리의 사위)는 장성택이 1993년부터 당 조직부 제1부부장 활동을 했다고 한다.
- 25 「연합뉴스」, 2008.3.5
- 26 이영종은 권력투쟁 속의 타살 가능성을 소개하고 있다. 앞의 책, pp.135~138
- 27 2009년 4월 초, 김정남 추정세력의 집회장소인인 우암각 습격을 김정은이 주도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영종, 『후계자 김정은』, 늘품플러스, 2010, pp.141~170 참조.
- 28 정성장, 「김정은의 성장과정, 자질과 후계자 결정 배경」, 세종연구소, 2010.9.28



footnote

- 29 “존경하는 김정은 대장동지의 위대성 교양자료”, 『마이니치신문』, 2009.9.8. 이 내부 문건은 2009년 6월경 군 간부 교양자료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 30 김갑식, “북한 ‘조선노동당대표자회’ 개최 결과와 향후 전망”,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126호, 2010.10.4
- 31 “북, 새 화폐 교환한도 높여”, 『연합뉴스』, 2009.12.1
- 32 이영종, 앞의 책, p.200
- 33 김정일은 대학졸업 이후 당 비서국 조직담당부서를 통해 당을 완전히 장악해 갔으며, 호위총국에 근무하면서 김일성 측근들을 장악했다. 아울러 당 선전선동부를 맡아서 자신의 지도자적 이미지를 만들어 갔다. 준비의 마지막 단계에 군부를 장악했다. 군부를 장악한 이후에 김일성이 사망함으로써 권력승계를 위한 최적의 조건이 만들어졌다. 군부를 장악하는 과정에서 총참모장 오극렬의 도움을 받았다.
- 34 1991년 12월에 인민군 최고사령관에 추대되고, 1993년 4월에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된 것은 김일성 생존시에 당·정·군의 거의 모든 권력을 인수했다.
- 35 장성택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이영호는 김정은이 승계자로 내정되는 시기에 대장, 차수로 승진하였으며 김정은 승계구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36 『노동당 규약』, 27조
- 37 탈북자 증언에 따르면 김경희는 승계경쟁에서 탈락한 김정남과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김정일 일가의 결속에 정치적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제가 있는 통일 강좌 29

권력이 세습되는 북한

chapter4



CHAPTER 4

제4장

김정일과 김정은의
권력세습 비교

1. 환경적 측면
2. 절차적 측면

4

제4장

김정일과 김정은의 권력세습 비교

1. 환경적 측면

1964년 노동당 당무를 시작하여 긴 세월 동안 승계준비를 통해 절대권력을 성공적으로 승계한 「김일성-김정일 승계과정」과, 승계자로 공식 지명되어 승계준비를 시작한 「김정일-김정은 승계과정」을 수평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 특히 후보자로 지명될 당시의 승계환경이 너무나 다르고, 승계환경의 차이는 승계과정의 차이를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김정일이 후계자로 지명된 1970년대 승계환경은 북한체제가 다음 몇 가지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었다. 첫째, 세계질서 및 동북아 질서 차원의 냉전체제는 북한체제의 안정적 유지를 보장했다. 적어도 국제사회는 유엔현장의 틀 속에서 북한 내부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원칙이 지켜지고

있었다.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진행된 공산화 도미노 현상 속에서 북한은 제3세계 외교의 한 축을 담당하면서 위상이 강화되어 있었다. 둘째, 남북관계 측면에서 북한은 다소 유리한 군사적, 경제적 입장에 있었다. 북측이 승계문제를 다루는 있어서 남북관계, 한반도 내부는 큰 변수가 되지 않았다. 남측에 비해 유리한 경제적 조건으로 인해 북한주민이 탈북하거나, 국내에서 도전할 징후가 거의 없었다. 셋째, 당시 김일성은 50대 초반으로 건강하였고, 건강문제로 인해 권력이 불안정하지 않았다. 김일성이 김정일의 권력승계를 후견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김정은은 후계자로 지명된 시기의 승계환경은 다음 몇 가지의 도전적 요소가 자리 잡고 있었다.

첫째, 세계 및 동북아 정세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북한체제의 불안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최고 권력자의 교체 차원이 아니라 북한체제의 유지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거론되는 상황은 승계문제 자체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둘째, 남북관계 측면에서 북한은 비교가 의미 없을 정도로 남한과 격차가 커졌다. 2만명이 넘는 북한주민이 북한체

제를 이탈하여 한국에 정착하고 있으며, 수십만의 북한주민이 체제를 이탈하고 있다. 북한체제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대거 이탈한 현실은 일시적으로 북한의 권력승계에 영향을 주지 않을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 권력의 안정적 승계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남북 군사관계에서 북한이 두 차례 핵실험을 감행한 상황이라 북한식 핵억지력을 갖고 있다.

셋째, 김정일이 김정은의 권력승계를 후견하는데 충분할 정도로 건강하지 않다는 점이다. 뇌졸중과 노인질환을 앓고 있는 김정일이 김정은의 권력승계를 준비하는데 충분할 정도로 생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거론되고 있다.

2. 절차적 측면

이러한 승계 초기 환경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승계절차와 내용’면에서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 절차는 김정일의 권력승계 절차와 매우 유사한 측면이 있다. 유사한 승계관련 정치적 조치로 권력승계를 진행시키고 있는바 주요일정을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다.

〈김정일-김정은 권력승계 일정 비교〉

김정일		김정은	
시기	내용	시기	내용
'42. 2	소련 출생	'82. 1	(미상)
'72.10	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10. 9	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74. 2	노동신문 김정일을 '당중앙'으로 호칭		
'74.10	'70일 전투' 발기, '3대혁명소조운동'을 주도	'09. 9	'100일 전투'
'76.8	8.18도끼만행 사건	'10.3	천안함 폭침
'80.10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회,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비서국 비서	'10. 9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83.10	아웅산 테러	'10.11	연평도 포격
'90. 5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91.12	인민군 최고사령관		
'92. 4	인민군 원수	'10. 9	인민군 대장
'93. 4	국방위원회 위원장		
'97.10	노동당 총비서		

위의 「권력승계 일정비교」에 나타나는 내용을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출생년도와 관련하여 김정일이 1942년에 태어나

고, 김정은이 1982년에 태어났다. 김정은의 출생연도와 관련한 논란³⁸, 그리고 북한당국이 ‘대를 이은 지도자 복’이라는 표현을 고려하면 북한이 작위적으로 출생연도를 40년 간격으로 맞추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노동당 중앙위원으로 선출된 시기를 고려할 때 김정일은 30세였는데, 비해 김정은은 28세로서 결코 김정은이 김정일에 비해 크게 빠르지 않다.

셋째, 김정일이 당 중앙위원회 중앙위원으로 선출된 이후 8년이 지난 이후에 당비서 등 주요 직책을 맡았는데 비해, 김정은 당 중앙위원회 위원과,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동시에 맡았다.

넷째, 김정일은 공식후계자로 선출되기 4년여 전인 1976년에 ‘8.18도끼만행사건’을 주도하여 군권을 강화했는데, 김정은이 공식후계자로 지명되기 6개월여 전에 천안함 폭침 사건이 일어났다. 김정일이 공식 후계자로 선정된 이후 2년여만에 미얀마테러가 자행되었던데 비해 김정은이 공식 후계자로 된 이후 약 2개월만에 연평도 포격도발이 일어났다.

앞서 고찰했지만 김정일이 김일성으로부터 권력을 승계한 과정상에 나타난 특징은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노동당 권력을 장악하고, 군사권력을 장악하는 순서로 승계준비를 진행했고, 자질 및 정책능력은 선전선동 능력에 의해 나타났다. 둘째, 권력장악에 절대로 필요한 군권 장악을 위해서 대담한 대남군사도발을 통해 군심을 장악했다. 셋째, 잠재적 권력경쟁세력에 대해 무자비한 숙청을 통해 권력기반을 강화했다. 넷째, 김일성 사망 이후에 권력이 승계된 것이 아니라 김일성 생존시에 이미 권력승계를 진행했다. 1991년 12월에 인민군 최고사령관에 추대되고, 1993년 4월에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된 것은 이미 당·정·군 권력체계에서 김일성 생존시에 이미 군사권력을 인수했음을 말한다. 다섯째, 2인 지도체제에서 1인 지도체제로 바뀌어 갔다. 1980년대 6차 당 대회 이후 북한의 권력은 실질적으로 김일성-김정일에 의해 분할 통치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김일성 사후 김정일은 모든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했다.

김정일이 아들 김정은에게 같은 방법으로 권력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당내 김정은의 권력기반을 강화하고, 김정은의 지도자적 카리스마를 만들어야 한다. 김정은이 당권을 장악하고 군권을 장악하는 승계과정을 거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없

다. 그래서 당권과 군권, 그리고 선전선동에 의한 카리스마를 동시에 장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와 방법으로 승계를 준비하고 있다.

첫째, 당권과 군권을 동시에 장악하도록 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그래서 양 권력의 접점기구에 해당하는 당 중앙군사위원회를 주목한 것으로 본다.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에 북한체제를 움직이는 17명의 위원을 임명해 놓고, 실질적으로 이들을 지도하는 부위원장 직위에 보직하여 단숨에 당과 내각을 장악하는 지도자적 지위를 주려고 하는 것이다. 둘째, 2차 핵실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을 통해 김정은이 군부 내에서 독자적 카리스마를 만들도록 했다. 북한은 천안함 폭침과 관련한 책임을 부인하고 있지만 군 내부적으로 김정은의 군사적 성과로 만들고 있다. 셋째, 잠재적 권력경쟁자인 김정남에 대한 김정은의 견제, 당 간부에 대한 교체를 방조함으로써 김정은에 대한 북한체제의 정치적 구심역할을 만들어 주고 있다. 넷째, 김정일 사후가 아니라 김정일 생존기간에 권력승계를 공표하고 준비해가고 있다. 다섯째, 권력승계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직책을 부여하면서도 당 총비서, 국방위원장 직위 이전은 유보함으로써 권력이양을 단계적으로 하고 있다.

권력승계 과정에서 가장 큰 차이는 김정일-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의 경우 정치일정을 서두른다는 점이다. 그런 측면에서 김정은이 승계자로 확정된 이후 대담한 군사도발도 빨리 일어났고, 대내외정책 정책조정도 비교적 빠른 사이클 속에 조정을 겪고 있다.

footnote

- 38 일본의 NHK방송은 2009년 12월 10일, '북한이 김정은의 나이를 당초 알려졌던 것 보다 더 많게 조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서방 정보기관들이 파악한 1984년 보다 2년 더 빨리 태어난 것으로 조정했다.

주제가 있는 통일 강좌 29

권력이 세습되는 북한

chapter5



CHAPTER 5

제5장

김정은의 권력세습 전망

1. 안정적 승계 가능성
2. 안정적 승계의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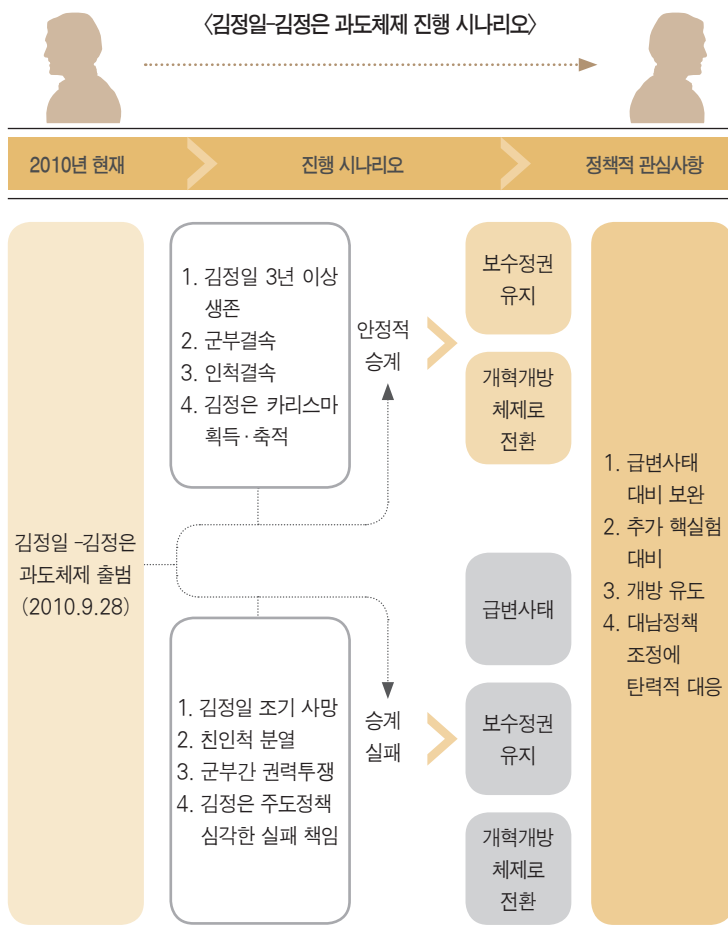
5

제5장

김정은의 권력세습 전망

1. 안정적 승계 가능성

북한이 안정적으로 권력을 승계할 것인가에 영향을 미칠 중심변수는 △김정일의 향후 생존기간, △군부의 지지, △김정일 일가의 단결, △김정은의 정책능력이 될 것이다. 이 네 가지 요소는 각자 별도로 작용하기 보다 서로 긴밀히 연관되어 작용할 것이다. 김정일의 향후 생존기간이 길다면 군부지지 획득이 용이할 것이고 김정일 일가의 결속도 문제 없을 것이며 체제가 직면한 문제 해결에 대한 책임논쟁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김정일의 향후 생존기간이 승계준비체제의 성공여부를 결정짓는 중심변수로 볼 수 있다. 승계실패, 실패 이후 상정할 수 있는 체제유형(endstate) 등을 고려하면 다음 그림과 같이 향후 과도체제 진행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과도체제가 의도한 대로 김정은으로 권력승계가 순조로울 것인가, 아니면 장애 속에 좌절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북한 및 한반도 전문가들의 통찰력에 의해 전망할 수밖에 없다.³⁹⁾

2010년 10월 7일에서 8일까지 한국국방연구원에서 개최한 안보관련 회의⁴⁰에 참가한 20여 명의 한반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설문조사를 하였다. 대체로 안정적 승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변수는 향후 김정일 생존 기간으로 생각하고 있다. 전문가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김정은이 안정적으로 권력을 승계할 것인가에 대해 20명 중 15(75%)명이 승계에 성공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단지 3명이 승계가 실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승계가 실패할 것으로 전망한 5명의 전문가는 모두 한국전문가였다.

둘째, 만약에 김정은이 안정적으로 권력을 승계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9명(45%)가 권력내부의 분열로, 6명(30%)가 김정일의 조기 사망, 4명(20%)이 군부지지 확보 실패로 원인을 지적했고, 1명은 알 수 없다고 응답하였다. 북한주민의 지지 여부는 승계의 성패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셋째, 권력승계의 성공에 영향을 미칠 김정일의 향후 생존기간과 관련하여 3명(15%)만이 3년 이상으로 전망했고, 대다

수 전문가들이 3년 이상 생존하기 힘들다는 전망을 하였다. 미국 전문가들이 비교적 짧게(2년 이내) 전망한데 비해, 한국전문가들이 향후 생존기간을 길게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과도체제가 새로운 개혁·개방체제로 이행할 가능성은 매우 낮게 보고 있다. 특히 75%가 안정적 승계를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승계문제가 내부 균열을 거쳐서 급변사태 국면’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매우 낮게 보고 있다.

2. 안정적 승계의 한계

안정적으로 승계가 어려운 상황은 북한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내부적 위기상황이 발생할 때이다. 이러한 내부적 위기상황은 분야별로 엄격하게 분리하여 상정하기 어렵지만 위기발생의 중심요소별로 다음과 같이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의 정치적 위기상황이다. 체제유지, 지배기구의 핵심인 김정일과 노동당의 지도 기능 마비이다. 김정일의 사망, 암살, 실각 그리고 노동당의 마비는 북한의 정치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며, 그 혼란은 단기적으로 극복하기 어려

을 것이다. 안드레인은 제3세계의 정치변동을 변동범위·수준의 차별성을 근거로 ①체제와 체제간의 변화(between-system changes), ②정책과정의 변화를 의미하는 체제내적 변화(within-system changes) ③정책적 차원의 변화(policy changes)로 나누었는데, 여기서 체제와 체제간의 변화위기가 북한의 정치적 혼란을 의미한다. 이러한 위기가 조성되는 과정에서 지도자의 사망, 암살, 노동당의 기능 마비 등을 예상할 수 있다.

둘째, 경제·사회적 위기의 차원에서 보면 국가의 자원부족, 식량난이 사회적 혼란, 체제위기로 진행되는 상황이다. 즉 식량부족으로 인하여 국내정치 과정의 기능이 정지되고 단순한 경제정책 차원의 변화 차원이 아니라 권력구조 차원, 체제의 질적 변화가 임박한 그러한 상황을 의미한다. 식량과 관련한 폭동이 발생하여 체제의 변혁을 요구하거나, 식량문제와 관련하여 권력내부의 갈등 등의 요인으로 인해 김정일체제의 붕괴, 노동당 일당지배의 와해 등이 이러한 상황에 해당된다.

셋째, 군사적 위기상황이다. 북한의 체제속성을 고려할 때, 정치와 군사를 분리해서 분석하기에 어려움이 많으나 북한 체제가 직면할 군사적 위기는 두 가지로 나누어 고려할 수 있다. 하나는 북한의 군부가 분열하여 내전으로 진행되는 상황이

다. 내전이 다른 정치적 위기, 경제·사회적 위기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맺으면서 발생할 수 있다. 김정일의 갑작스런 사망에 따른 권력 진공상태나, 쿠데타, 사회적 소요의 확대에 편승하여 군의 사령부 간에 영향력 확대 및 대내외 정책에 대한 갈등으로 촉발 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북한이 국지도발을 하거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지속하여 주변국이 물리적 제재를 하는 경우이다.

2011년 현재 김정일의 안정적 권력승계와 관련하여 고려할 수 있는 도전요소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당내 권력기반이 충분히 강화되지 않았다. 김정일의 후견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당·정·군의 권력기반을 강화하고 있지만 시간적으로 충분하지 않다. 둘째, 3대세습에 부정적인 주민들의 정치의식이 일정한 방향성을 갖고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탈북주민과 잔류가족의 접촉 강화, 중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주화 열기는 북한주민의 의식에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 북한군부의 단결도 주요한 변수다. 김정남, 김정철,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권력승계자에 대한 검증과정에서 북한군부도 분열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1) 당내 권력기반 강화의 성패

김정은이 안정적 승계에 필요한 정치적 관건은 권력기반을 강화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 당연히 김정일 위원장의 생존기간이 길어지고 당·정·군내 권력기반에, 친족내부의 단결, 주민의 정치적 충성심 등이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 김정은은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으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

김정은은 당내 권력기반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기득권층 자녀들과 결속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엘리트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다음과 같이 대별될 수 있을 것이다.⁴¹ 첫째, 친·인척 집단이다. 대표적인 친·인척은 김경희, 김정남, 김정철, 장성택, 김옥이다. 둘째, 빨치산 세대 및 빨치산 2세대이다. 북한 엘리트 층원의 가장 큰 특징은 빨치산의 직계후손인 2세들의 등용이 많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2세 엘리트들인 오극렬 등 원로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일이다. 정치적·사회경제적 경험에 기초하여 북한의 세대를 구분하면, 혁명1세대는 항일빨치산세대, 2세대는 전쟁 및 전쟁보국세대(천리마세대), 3세대는 3대혁명세대, 4세대는 그 이후의 세대로 볼 수 있다. 현재 북한의 엘리트층을 구성하고 있는 3세대와 4세대 간에는 차이가 있을 것으

로 보인다. 우선 3세대들은 3대혁명의 주축세력이고 유일사상체제의 기초축성시기(70년대 초반)에 기여했으며, 사회주의 체제의 최고 전성기를 구가했으므로 체제에 남다른 정체성을 갖고 있을 수 있다. 하지만 4세대는 북한이 합영법을 제정하고 세계청년학생 축전을 개최하는 등 개방적 경향을 띠고 경제·외교적으로 점차 쇠락해가던 시기의 주역이었으므로 체제에 대한 정체성이 3세대에 비해 다소 약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한 탈북자는 혁명 3세대와 4세대의 인식과 사업방식에서 큰 차이를 경험했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3세대와 4세대는 지금 북한에서 사업을 비준하는 실무 진영에 포진되어 있는데 아래로부터 정치문제와 경제문제가 충돌하는 제의서가 올라올 경우 3세대 비준권자는 정치문제에 비중을 두는 반면, 4세대 비준권자는 경제문제에 비중을 둔다”는 것이다. 3세대는 “개혁·개방을 잘못하면 자신의 기득권을 상실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반면, 4세대는 “잘만하면 기득권을 지키면서도 국가발전을 이룰 수도 있다”라는 상이한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⁴²

이와 관련하여 김정은은 새로운 기득권층 및 그 자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권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그는 현재 김정일 체제의 핵심층 자녀들과 밀접한 협력

관계를 형성, 발전시키고 있다. 만약 이들 세력의 단합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균열시킨다면 권력승계에 심각한 장애에 직면할 것이다.

2) 주민들의 정치의식 변화 방향과 속도

2011년 들어 튀니지, 이집트, 예멘, 리비아, 바레인 등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거대한 정치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집트에서는 무바라크 대통령이 하야했으며, 리비아에서는 카다피 대통령이 시민군에 붙잡혀 사살되었다. 중동에서 진행되는 정치변화를 위한 노력들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중동에서 진행되는 변화들에 대해 일부 세계 석학들은 구소련이 붕괴되고 새로운 질서가 구소련과 동유럽에 구축되는 '대변화'로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2011년 벽두에 진행되는 중동의 정치변화를 지켜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러한 변화 바람과 동력이, 동진하고 동진하여 중국을 거쳐 북녘에까지 이어질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중동국가와 북한의 정치체제와 사회양상을 고려할 때 중동에서 진행되는 변화 동력이 단기적으로 북한의 변화를 촉발할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는다.

2011년 1월 14일 국민들의 시위로 정권이 붕괴된 튀니지의 국민 1인당 소득은 약 4,000달러에 이른다. 튀니지의 국민 소득 수준은 우리나라가 올림픽, 아시안게임을 할 당시 수준의 국민소득이다. 1956년 독립하기 이전에 프랑스의 식민치하에서 주민들은 유럽식 정치문화를 잘 숙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무바라크 정권의 시위로 퇴진한 이집트는 국민 1인당 소득 수준이 약 2,560달러 수준에 이르고, 대통령 중심제인 공화제를 택하고 있다. 예멘 또한 1인당 국민소득이 약 2,800달러 수준에 이르고 공화제이다. 리비아의 1인당 국민소득은 약 18,220달러 수준이고 직접 민주주의를 택하고 있다. 세습군주제를 택하고 있는 바레인의 1인당 국민소득은 약 20,000달러에 이른다.

중동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민들의 정치적 요구는 정권교체에 있다. 특히 외양상으로 공화제를 표방하면서 실질적으로 일인(一人), 일가(一族), 일당(一黨)의 장기집권체제에 대해 국민들이 저항하고 교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중동국가의 국민들이 현존하는 정치권력에 대해 저항하는 힘과 수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치권력에 저항하는 국민들의 힘은 경제적 힘, 도덕적 힘, 군부의 선택, 외부환경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대체적



리비아 혁명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모습

으로 이들 중동국가들은 북한주민에 비해 정부와 분리된 시민 사회의 힘이 상대적으로 강력하다. 정치변동이 진행되고 있는 국가 중 가장 가난한 이집트, 예멘이 약 3,000달러 수준이고 리비아는 약 20,000 달러 수준이다. 적어도 며칠, 몇 개월 동안 정

부에 의존하지 않고 생존이 가능하고, 투쟁이 가능하다. 그런데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한국은행 공식통계로는 1,000달러 미만이다. 실물경제 차원에서 봤을 때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500달러에도 미치지 못한다. 중동국가 주민들에 비해 북한주민들의 경제적 힘은 너무나 미약하다. 하루 먹거리를 걱정하는 국민들이 정치적 변동을 만들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저항운동을 통한 정치적 변동에 있어서 도덕적 힘이란 ‘저항정신의 강도’를 말한다. 중동국가들 국민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그들 정치적 지도자에 대한 권위를 대체하는 종교적 신심을 갖고 있다. 정치학적 용어로 세속화(Secularization)가 덜 되어 있다. 일상생활과 정치생활에서 정치와 종교가 미분리되어 있다. 따라서 국민들이 종교적 가치를 앞세워 정치투쟁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중동국민들의 종교적 태도는 지배집단에 의해 권력이 안정되어 있을 때는 정치적 복종의 에너지가 되지만, 저항엘리트(counter-elite)에 의해 거대한 반정부 에너지가 될 수 있다. 1979년 호메이니가 만든 반정부 에너지가 바로 그러한 반정치, 불복종 에너지의 전형이다. 이슬람교 내부의 분열과 갈등이 있지만 이들 국가들이 종교적 가치를 내세워 현존 권력에 저항할 수 있는 정치적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북한에는 현존 정부에 저항을 부추길 수 있는 가치체계가 매우 미약하다. 정치문화의 전통과 관련해서도 이들 중동국가 국민들은 유럽의 대의제 민주정치제도 하에서 식민통치를 경험했기 때문에 정치적 저항의 권리를 폭넓게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조선시대-일본식민시대-김일성 일가의 독재체제를 경험한 북한주민들은 정치적 저항을 경험할 기회가 전혀 없었다. 결론적으로 중동국가 주민들에 비해서 북한주민이 정치적으로 저항할 도덕적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그러나 지금 북한에도 주민들의 의식변화가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 이미 20,000명 이상의 주민들이 탈북하여, 한국에 거주하는 것 자체가 집단적 의식변화를 증거한다.

중동국가 국민들은 어떻게 해서 정치적 변동을 갈구하게 되었고, 죽음을 무릅쓴 정치투쟁을 하게 되었는가? 글로벌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통신혁명으로 봐야 한다. 인터넷, 위성방송으로 수신되는 글로벌 뉴스 속에서 중동국가 국민들은 자신들을 규정하고 있는 국내정치환경을 평가하는 눈을 가지게 된 것이다. 현재 중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혁명을 재스민 혁명이라고 한다. 재스민은 꽃 이름으로, 튀니지의 나라꽃이다. 재스민 혁명을 이끈 것은 이동통신, 인터넷이라고 할 수 있다. 재스민꽃 향기를 옮긴 것은 별과 나비, 바람이 아니라 인터넷, 이

동통신이라는 괴물인 것이다. 북한에서 진행되는 정치변동을 예측해 보려면 북한지역에서 유통되고 있는 인터넷, 이동통신 현황을 평가해 봐야 한다.

현재 북한지역에는 정확하게 통계를 잡기 힘들지만 약 50만대의 모바일폰이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놀랍게도 북한의 이동통신은 이집트 회사가 서비스를 하고 있다. 2008년 12월 15일 북한 조선체신회사와 이집트 오라스콤텔레콤은 평양에서 '3세대이동통신봉사선포식'을 갖고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했다. 오라스콤텔레콤은 이집트의 대표적인 통신회사다. 북한체신회사는 약 25%의 지분을 갖고 있다. 일설에 의하면 이집트는 평양 유경호텔건축 완공에 필요한 자본을 지원하고 통신회사 사업권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적어도 북한지역에서 이동통신공급이 확대되고, 인터넷 사용인구가 증가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중동에서 일어나는 정치변화가 북한에서도 싹틀 가능성이 있다.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평양시민

중동사태와 관련하여 북한의 세습예정자 김정은이 직접 “중동사태를 우려해 사상교육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한다. 북한지도자들은 재스민혁명의 동진을 우려하고 예방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중동사태를 보면서 북한은 주민에 대한 사상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내정치를 취할 가능성이 많다. 정치체제를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면 이동통신과 인터넷 정책을 통제,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

3) 북한군의 단결 여부

김정일의 권력승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요소는 군부의 결속 유지이다. 현재 김정일은 다음과 같은 인원으로 구성된 당 중앙군사위원회를 통하여 군권을 장악해 가고 있다.

북한 군부에서 장령급에 해당하는 구성원을 군 지도층으로 간주하면 세대별로 이들을 크게 3그룹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다.⁴³ 혁명 1세대는 김일성과 항일 빨치산 운동을 전개한 동료들이다. 이들의 정치적 성향은 다분히 혁명적 전통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 개방과 개혁을 억제하는 보수주의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 기본적으로 정치적 혼란기에도 가장 마지막 순간까지 기존 정권의 옹호세력으로 남게 될 것이다. 그러

나 이들의 정치상징적 영향력에 비해 실질적 영향력은 급속하게 쇠락하고 있다.

군의 혁명2세대는 대체적으로 혁명1세대 보다 10여 년 정도 나이 차이가 나며 이들은 대부분 해외유학 경험을 갖고 있다. 1세대에 비해 2세대 간부들은 상대적으로 개방적이며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 혁명3세대는 2세대와 달리 해외유학의 경험을 지니고 있지 않다. 이들은 북한이 정부수립 이후 설립한 자체 군관학교에서 양성되어 있어 해외유학을 거칠 필요가 없었다. 이들 3, 4세대들은 현재 군단장급 이하 주요 지휘관을 맡고 있는데 해외 실정에 어두울 것으로 분석된다. 3, 4세대의 체제에 대한 충성심이 김정일 이후에도 유지될지 아직 예단할 수 없다. 이들의 충성심 결속여부가 안정적 승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김정은과 함께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영호는 김정은이 승계자로 내정되는 시기에 대장, 차수로 승진하였으며 김정은 승계구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본 마이니치가 입수한 것으로 알려진 김정은 우상화자료 「존경하는 김정은 대장동지의 위대성 교양자료」에 따르면 김일성군사종합대학을 졸업한 김정은

은 포병 부문에 매우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한다. 고위 군사탈북자 증언에 따르면 이영호는 포병분야에 탁월한 조예를 갖고 있다.⁴⁴

오극렬, 이영호를 중심으로 김정은에 대한 군의 충성심을 결집시키려는 노력이 진행 중에 있지만 2002년부터 2005년 사이에 김정철을 후계자로 상정한 군부와의 단결이 과제로 남아 있다.

footnote

- 39 1996년 미국의 대표적인 20여명의 중국전문가들은 ‘직관’에 의존하여 덩소평 이후의 권력변동과 대외정책방향을 전망했다. 중국이 ① 강력한 전체주의체제, 명령적 사회주의체제로 회귀할 것인가, ②진보적 개혁 또는 민주적 중국으로 발전할 것인가, ③거대 중국이 구소련처럼 국내외적 요인에 의해 붕괴될 것인가? 20여명의 중국 전문가 중 30%는 ①명령경제체제로의 복귀 가능성을 예측했고, 20%는 ②진보적 중국으로 진행을 전망했고, ③50%는 중국이 해체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덩소평이 사망한 이후 진행된 중국의 권력승계와 대외정책을 검토해 보면 대부분의 미국 내 중국 전문가들이 적절한 예측을 하지 못했다. 전문가들이 폐쇄적인 중국의 권력변동을 예측하는데 한계를 보인 것이다.
- 40 한국국방연구원에서 개최된 회의에 한국의 한국국방연구원(KIDA), 미국의 국방대학원(INSS), 일본의 방위연구소(NIDS)가 참가했다. 설문에는 한국 전문가 9명, 미국 전문가 5명, 일본 전문가 6명이 설문조사에 응했다.
- 41 자세한 내용은 전현준, 「김정일정권의 권력엘리트 연구」, 민족통일연구원, 1995 참조.
- 42 이교덕 외, op.cit., p.18
- 43 이민용, 『개정판 북한학』, 박영사, 1996, p.111
- 44 백승주, 「북한 군부 주요 엘리트의 집단별 정치배경 분석과 역할 전망」, 국방연구원 제3회 북한군사포럼 종합논문집, 2009 및 이기동, 「북한의 권력구조 개편과 대외·대남정책 전망」, 민화협 주최 학술회의 발표논문, 2010.11.2 참조

주제가 있는 통일 강좌 29

권력이 세습되는 북한

chapter6

CHAPTER 6

제6장

맺음말

제6장

맺음말

6

2010년 9월 28일 한반도 정치지형에 ‘준비된 사변’이 일어났다. 김정일의 3남 김정은이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데뷔한 것이다. 노동당 비서국 총비서, 헌법상 기구인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맡지는 않았지만 김정은을 북한 미래권력의 중심으로 보는 데는 이의가 없다. 성급한 전문가들은 김정은을 ‘미래권력’이 아닌 ‘현재권력’으로 보고 있다. ‘준비된, 예고된’이란 수식어는 돌출적 정치적 사건을 의미하는 ‘사변’이라는 말과 조화되지 않는다. 공개적으로 준비하고 있거나, 확실히 예측할 수 있다면 ‘사변’이 아니라 ‘행사’라고 해야 할 것이다. 2010년 9월 28일 개최된 북한의 노동당 대표자회는 북한 권력자에게는 ‘행사’였고, 그 이외 사람들에게는 사변이었다. 행사였든, 사변이었든 김정일 후계자로서 김정은이 등장한 것은 한반도의 현재,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하다.

북한의 권력교체는 사실상 수령의 교체를 의미한다. 북한이 국내정치에서 발전시킨 수령체제는 정치이론에서 조망하면 세습왕조체제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을 후계자로 지명함으로써 북한 정치체제는 모든 주권이 국왕에게 귀속되어 있는 「왕조체제」적 특징을 갖고 있음을 내외에 확인시켰다. 북한이 노동당 대표자회를 통해 3대 세습체제 구축 프로그램을 밝힌 것은 북한체제의 주권이 ‘인민’이 아닌 ‘김정일, 김씨일가’에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을 의미한다.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은이 제대로 권력을 승계할 것인가? 2010년 9월 28일 북한은 노동당 대표자회를 통해 김정은이 북한이 준비 중인 미래권력의 중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당연히 그 날 이후, 김정일 이후에 누가 권력을 승계할 것인가라는 의문과 논쟁은 일단 사라졌다.

대신에 김정은이 제대로 무난하게 권력을 승계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체로 안정적으로 승계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2010년 10월 초 한 국제연구기관이 주최한 「한국-미국-일본의 국제회의」에 참가한 한반도전문가 20명을 상대로 필자가 김정은 권력승계 관련 전망에 대한 전문가 조사를 종합하면 전문가 20명 중 15명, 75%정도가 김정은이

별 탈 없이 승계할 것이라고 내다 봤다. 25%가 실패할 것이고 봤는데 한국전문가들이 실패할 가능성을 많이 예상했다. 만약 승계가 실패한다면 무엇 때문인가라는 질문에는 김정일의 조기사망 6명(30%), 권력구조 내 분열을 9명(45%), 군부지지획득 실패를 4명(20%)라고 대답했다.

승계의 성공여부를 결정짓는 요인으로 부각된 김정일의 향후 생존기간, 권력구조분열, 군부지지 획득 실패라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이들 장애요인들과 김정일의 향후 생존기간은 별개의 문제로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매우 긴밀히 연관된 변수이다. 향후 김정일의 생존기간이 길수록 군부 충성심 확보가 용이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김정일의 향후 생존기간은 김정은의 군부장악 상태와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김정은에 대한 군부의 충성심 확보 여부가 김정은의 정치운명은 물론 현 북한체제의 미래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김정은에 대한 군부의 충성심 확보가 안정적 승계의 관건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김정일이 잘 알고 있다.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에 김정은에게 군부의 충성심을 고스란히 넘겨줄 것인가를 고민했을 것이다. 2010년 6월 26일 당 대표자회 개최

를 공고하면서 당, 군부, 정무원 중 어느 기관을 통해 후계자로 데뷔시킬 것인가? 데뷔시킬 때 첫 번째 직책을 무엇으로 줄 것인가를 고민했을 것이다. 장고 끝에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직책을 택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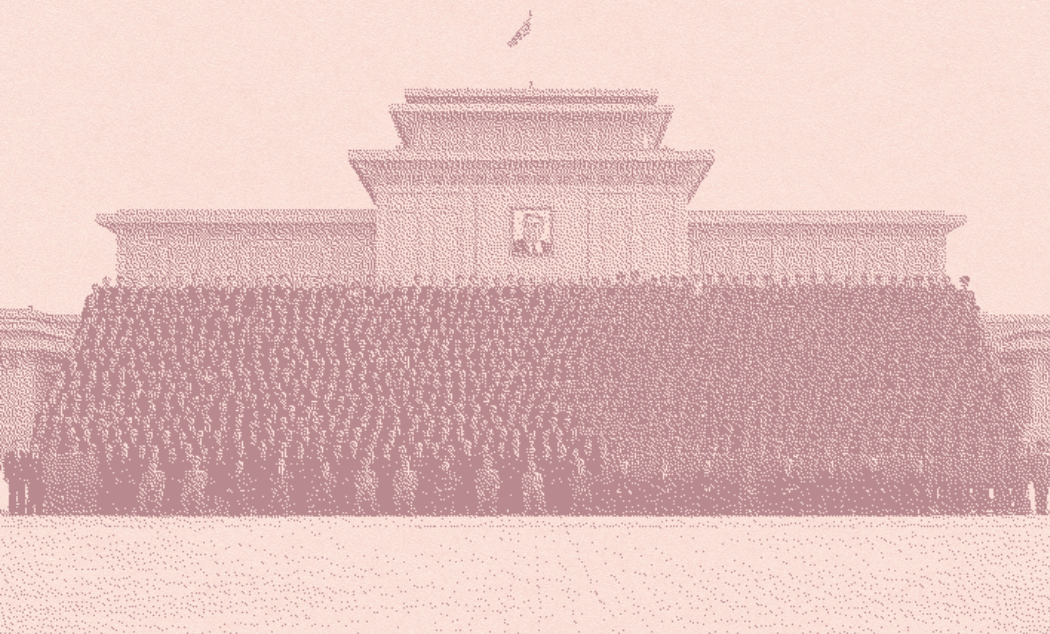
부자세습 승계를 위해서 김정일은 자신의 승계과정을 면밀히 검토했을 것이다. 북한체제가 안정적으로 권력승계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적 모델’은 바로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권력을 승계한 과정을 답습하는 것이다.

아들 김정은에게 같은 방법으로 권력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아울러 당내 김정은의 권력기반을 강화해야 하고, 선전선동부서 등을 통해 김정은의 지도자적 카리스마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군부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요약하면 당권을 장악하고 군권을 장악해야 한다.

그런데 김정은이 당권을 장악하고 군권을 장악하는 승계과정을 거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없다. 그래서 당권과 군권, 그리고 선전선동에 의한 카리스마를 동시에 장악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당권과 군권을 동시에 장악하는 권

력기관의 점점에 당 중앙군사위원회를 주목한 것으로 본다. 노동당 규약에 따르면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당 군사정책 대행방법을 토의 결정하며 인민군을 포함한 전무장력 강화와 군수산업발전에 관한 사업을 조직, 지도하며 우리나라의 군대를 지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당의 당규가 북한 헌법을 지도하는 체제원리를 적용하면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헌법상의 기관인 국방위원회를 지도하는데도 문제가 없다.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에 북한체제를 움직이는 17명의 위원을 임명해 놓고, 실질적으로 이들을 지도하는 부위원장 직위에 보직하여 단숨에 당과 내각을 장악하는 지도자적 지위를 주려고 하는 것이다.

김정은의 안정적 권력세습은 단기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승계된 권력의 리더십, 정책의 방향이 체제유지 기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북한주민의 정치의식이 변하고 있고, 국제사회의 압력도 북한 국내정치에 관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김정은이 권력을 승계한 이후 현재와 같은 리더십을 고수한다면 북한의 권력승계는 중국적으로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 강명도, 『평양은 망명을 꿈꾼다』, 중앙일보사, 1995
- 곽승지, 「북한의 후계자론과 권력승계 과정」, 『안보연구 제23호』, 1993
- 김광인, 『북한 권력승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정치학과 박사학위 논문
- 김성철 외, 『김정일 연구: 리더십과 사상(I)』, 2001
- 김인옥, 『김정일장군 선군정치리론』, 평양출판사, 2003
- 김종우 역, 『김정일의 북한, 내일은 있는가』, 청정원, 1999, pp.145~159
- 박한식·고병철, 「김일성 이후의 북한정치 전망」, 『김일성 이후의 북한』, 국토 통일연구원, 1990, pp.11~13
- 배성인, 「북한의 권력구조 개편과 김정일 정권의 권력엘리트」, 『북한연구학회보』 제4권 제1호, 2000
- 백승주, 『포스트김정일체제 프로세스와 한반도 비전』, 한국국방연구원, 2009
- 백승주, 「주요 북한군부 엘리트의 집단별 특징 및 정치배경 분석」, 『변환시대의 남북군사관계 전망』, 한국국방연구원, 2009
- 백승주·김구섭, 「김일성-김정일 초기 권력승계의 전망 및 대책」, 국방연구원, 1992
- 손광주, 『김정일 리포트』, 바다출판사, 2003
- 이관세, 「김정일 후계체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1989

- 이교덕**, 『북한의 후계자론』, 통일연구원, 2003
- 이교덕·임순희·조정아·이기동·이영훈**, 『새터민의 증언으로 본 북한의 변화』, 2007
- 이기동**, 「김정일 후계구도,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북한』 2004년 4월호
- 이영중**, 『후계자 김정은』, 늘품플러스, 2010
- 이종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 역사비평사, 2000
- 이한영**, 『김정일 로열패밀리』, 시대정신, 2004
- 정성장**, 「post-김정일체제전망: 후계자문제를 중심으로」, 『북한학보』 33집 1호, 2008
- 정성장**, 「김정일 시대 북한의 후계문제」, 『한국정치학회보』 39집 2호, 2005
- 성혜랑**, 『등나무집』, 지식나라, 2000
- 손광주**, 『김정일 리프트』, 바다출판사, 2003
- 전경만 외**, 「중·소 및 동구의 개발하와 북한의 변화전망」, 국방연구원, 1990
- 차두현**, 「김정일 권력승계에 있어서 북한군부의 정치적 역할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1986
- 전현준**, 『김정일정권의 권력엘리트 연구』, 민족통일연구원, 1995
- 최진욱**,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 연구』, 민족통일연구원, 1996
- 정성장**, 「김정일시대 북한의 후계문제」, 『한국정치학회보』, 2007



통일부, 『2011 북한기관·단체별 인명집』, 2011

통일부, 『2011북한의 주요인물』, 2011

황장엽,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 한울사, 1999

후지모토 겐지 저·신현호 역, 『김정일의 요리사』, 월간조선사, 2003

Naval War College, "China in the Near Term", 1994.8.10

Leslie Holms, *Politics in the Communist World*, Oxford University, 1986

「내외통신」

「노동신문」

「연합뉴스」

「조선일보」

「조선중앙방송」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년감』

“ 2010년 9월 28일 북한은 김정일의 3남 김정은을 김정일을 이을 후계자로 공식 지명했다. 북한이 3대 세습체제를 공식 화함으로써 북한당국 스스로 북한체제가 '전근대적 세습왕조체제'임을 확인해 준 것이다. ”

발 간 등 록 번 호

11-1250054-000090-14